

제 1 교시 나무아카데미 국어영역

[1~3] 다음은 학생회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우리 학교의 ‘먹거리 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어머니 도우미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회 배심원들께서는 학습부장과 자치부장의 의견을 잘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부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습부장 : 우리 학교의 ‘먹거리 장터’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공정한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익히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 장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사회자 : 자치부장께서는 학습부장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부장 : 장터는 수익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먹거리 장터’에서 학생들이 만든 음식은, 외부에 비해 음식의 맛이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남는 장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 도우미를 허용해야 합니다.

학습부장 : 작년의 경우 일부 가게에서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내놓는 바람에 학생들의 힘만으로 음식을 준비한 가게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어머니들이 합세한 가게의 수익이 전체 장터 수익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일부 어머니들에 의해 공정한 경쟁의 룰이 깨지면서 나타난 문제였습니다.

자치부장 : 일부 어머니들이 참여한 가게가 전체 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만든 음식의 맛과 질이 떨어진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취지만을 강조하다가 학교 ‘먹거리 장터’가 결국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

사회자 : 네, 학습부장은 학교 장터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어머니 도우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치부장은 장터의 수익을 고려하여 어머니 도우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군요. 계속해서 두 분 토론자의 의견을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부장 : 물론 장터의 수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수익을 늘리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무턱대고 어머니 도우미에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장터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자치부장 : 학습부장께서는 본래의 취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요즘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은 축제 때 운영한 장터의 수익을 불우 이웃 돕기에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에게만 의미 있는 장터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장터가 되기 위해서라도 어머니 도우미를 허용하여 수익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부장 : 요즘 많은 학교에서 수익 사업에 초점을 둔 학교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예전부터 ‘학생들의 경제관념 함양’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 장터를 운영해 온 만큼,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부장 : 바람이 바뀌면 돛의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 처음의 취지만 얽매다 보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장터도 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두 분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회 배심원들께서는 ‘먹거리 장터’ 운영과 관련된 어머니 도우미

허용 여부를 표결해 주십시오.

1. 두 토론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먹거리 장터’의 운영 목적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 ② ‘먹거리 장터’의 음식 수준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 ③ ‘먹거리 장터’의 시설 규모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 ④ ‘먹거리 장터’의 수익 사용처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 ⑤ ‘먹거리 장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다르기 때문에

2. 토론 참여자들이 말하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습부장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상대방 의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② 자치부장은 상대방이 제시한 수치를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
- ③ 사회자는 중간에 두 토론자의 입장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학습부장은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의 일부를 인정하며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 ⑤ 자치부장은 요즘의 전반적인 추세를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3. <보기>의 자료를 위 토론에서 활용한다고 할 때, 그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보기>

□□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6일, 학교 축제의 일환으로 먹거리 장터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장터는 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맛있는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판매하여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 고등학교는 장터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난치병 치료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① 먹거리 장터의 본래 취지를 강조하는 학습부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어머니들의 참여가 장터 수익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자치부장의 의견에 설득력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③ 자치부장이 강조하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학교 축제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 주는 구체적 자료로 활용한다.
- ④ 학생들이 만든 음식은 외부 음식에 비해 음식의 맛과 질이 떨어진다는 자치부장의 주장과 부합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최근 추세와 상관없이 학교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학습부장의 의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4~7] (가)는 글을 쓰기 전 누나와 동생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창민 : 누나, 작문 수행 평가 과제로 독서 감상문을 써서 제출해야 돼. 그런데 막상 글을 쓰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화연 : 우리 동생이 작문 수행 평가 과제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먼저 독서 감상문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 글을 쓰기 전에 이 글을 왜 쓰는지 생각해 보면 글쓰기의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거든.

창민 :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책을 읽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감상문을 작성하라고 안내해 주셨어. 나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네.

화연 : 그래. 그리고 독서 감상문을 작성할 때에는 책을 읽게 된 동기, 책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책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나의 생각과 느낌 등이 잘 드러나도록 처음·중간·끝으로 적절하게 내용을 선별하여 조직하는 것이 좋아.

창민 : 음..... 처음 부분에는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지?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책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웠던 점을 서술하면서, 책 내용에 대한 나의 느낀 점을 덧붙여 제시해야겠어. 마지막으로 끝부분에서는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해.

화연 : 참, 그리고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인상적인 제목을 붙이면 독서 감상문을 읽으시는 선생님께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야. 제목을 작성할 때는 네가 생각하는 책의 주제를 포함하면서 눈길을 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

창민 : 그래? 제목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화연 : 좋은 생각인데. 그럼 이제 글쓰기 계획부터 하나씩 작성해보도록 하자.

창민 : (㉠)

(나)

나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여 본심 반 장난 반으로 이 책을 접했다. 옛날에 읽었던 작은 나라 사람들 기억도 나고 해서 말이다. 겉표지부터 신성 모독이니 금서니 하는 말들이 내 흥미를 자극했다.

이 소설은 걸리버가 우연히 소인국, 거인국 등 모두 8곳의 신비한 나라들을 여행하고 경험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번에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소인국과 거인국 이야기였다. 「걸리버 여행기」를 처음 읽었을 때는 ‘소인국이니, 대인국이니’ 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보며 ‘이러니까 동화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쌓은 경험과 배운 지식 등을 떠올려 보니, 이 소설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한 소설임을 알게 되었다.

소설 속에서 걸리버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소인이 되기도 하고 거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크고 작음의 문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걸리버가 끊임없이 변화듯이, 우리도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변화한다. 나도 변화하고 대상도 변화한다. 이렇게 세계의 모습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 안에 있는

소인과 거인, 내가 마주치는 소인과 거인을 통해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새로 읽은 「걸리버 여행기」는 예전과는 다른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 예전에는 단순히 재미로만 읽었지만 다시금 읽어 보니 나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만 고집하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다. 이 책을 읽은 후 편협한 시선을 벗어나 다양한 시선과 의견이 존재함을 생각하며 ‘상대성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깊이 다짐하게 되었다.

4.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쓰기 계획이다.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처음	「걸리버 여행기」를 읽게 된 동기	→	「걸리버 여행기」를 읽게 된 이유를 드러내자.....㉠
중간	「걸리버 여행기」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내용	→	「걸리버 여행기」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소개하자.....㉡
	「걸리버 여행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	→	나의 경험과 배경지식에 비추어 「걸리버 여행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제시하자.....㉢
끝	「걸리버 여행기」에서 얻게 된 깨달음	→	소인국과 거인국 이야기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하나의 문단으로 쓰자.....㉣
	「걸리버 여행기」를 읽고 돌아본 나의 모습	→	나에 대한 반성과 다짐을 중심으로 마무리하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5. (가), (나)를 참고하여 독서 감상문의 제목을 작성하려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걸리버 여행기, 동화에 숨겨진 인간의 타락함을 보다.
- ② 18세기 영국과 유럽의 상황,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속에 담다.
- ③ 재미난 동화 이야기, 걸리버의 여행 속에 감추어진 상대적 시선을 알고 있나요?
- ④ 나의 인생을 바꾸어 준 걸리버,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준 책은 무엇인가요?
- ⑤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꿈꾸고 싶은 여러분, 걸리버와 함께 세상을 둘러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6. (가)에서 창민과 화연의 말하기 방식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창민과 화연은 모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호응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창민과 화연은 모두 상대방의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효율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 ③ 창민은 화연과 달리 비격식체를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있다.

④ 화연은 창민과 달리 상대방의 잘못된 생각을 직접적으로 지적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⑤ 화연과 창민은 모두 직설적 화법 보다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7. (가)의 대화 과정을 바탕으로 ㉠에 들어갈 추가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제목을 작성하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까?
- ② 글을 퇴고할 때에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어?
- ③ 그래, 그런데 글쓰기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해?
- ④ 혹시 독서 감상문을 통해 반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는 방법은 없을까?
- ⑤ 보통 제목에는 어떤 수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예상 독자 : 학교 신문을 읽는 학생들
- 글을 쓰게 된 배경 :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해 모르는 친구들이 많음.
- 글의 목적 :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건강 불평등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함.

[학생의 초고]

건강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먹거리를 찾고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의료 혜택을 받으며 살고자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나 경제적 이유로 보건·의료 혜택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개념이 ‘건강 불평등’이다.

건강 불평등이란 건강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이나 집단들 사이의 차이(difference), 변이(variations), 격차(disparities)를 지칭하는 것으로, 건강에서의 개인 간 변이가 아닌 사회 경제적 지위나 수준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건강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건강 불평등 격차를 낳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소득과 학력이다. 계층 간에 소득과 학력의 격차가 커지면 그것이 건강 불평등 문제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학력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건강 불평등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 격차는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편이다. 2013년 9월 3일 국제 구호개발 기구 월드비전이 발표한 전 세계 176개국의 건강 불평등 격차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문제는 2013년 보건 사회 연구원이 암 환자 43,000여명의 소득 계층별 생존율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똑같이 암에 걸려도 고소득층의 생존율은 저소득층에 비해 뚜렷이 높았으며, 학력 격차에 따른 사망률은 8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소득과 학력의 격차가 지역별 의료 기반 시설의 양극화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의료 소외 계층이 의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작문 상황’과 ‘학생의 초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상 독자의 요구를 글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필자와 독자가 소통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② 필자가 속한 집단의 개인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친교적 관계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표현 행위이다.
- ③ 예상 독자에 대한 필자의 건의 사항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④ 일상의 체험으로부터 깨달은 주관적인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개인의 체험과 사색의 결과를 기록하는 표현 행위이다.
- ⑤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안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문은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 폭을 넓혀 주는 표현 행위이다.

9.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이 자신의 초고를 보완하고자 할 때, 그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보기>

영국 런던대 공중 보건학 교수 마이클 마뎃에 따르면, 소득 7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사망 위험률을 1로 잡을 경우 5만~7만 달러인 사람들은 1.34, 3만~5만 달러인 사람들은 1.59, 2만~3만 달러인 사람들은 2.21로 나타났다. 그런데 1만 5천~2만 달러인 사람들은 3.04, 1만 5천 달러 미만인 사람들은 3.89로 사망 위험률이 갑작스럽게 올라갔다. 주목할 부분은 사망률의 차이가 1970년대보다 1990년대에 훨씬 더 심각하게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회계사와 엔지니어, 의사 같은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단순 노동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데, 1990년대의 단순 노동자들은 1970년대 전문 직종 종사자들보다 수명이 더 짧았다.

- ① 계층 간 소득 격차의 심화가 건강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강화하는 데에 활용한다.
- ②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으로 건강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활용한다.
- ③ 사회 구조적 문제가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데에 활용한다.
- ④ 계층 간의 소득 격차보다 학력 격차로 인해 심화되는 건강 불평등 문제의 해결이 더 어렵다는 사실을 구체화하는 데에 활용한다.
- ⑤ 건강 불평등 격차가 큰 국가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체화하는 데에 활용한다.

10. 다음은 △△도 여행 기행문을 쓰기 위해 <보기>의 계획에 따라 작성한 초고이다. <보기>를 고려하여 초고를 점검·조정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여행지로서의 △△도 내력 → △△도의 규모와 풍경 → △△도에서의 느낌 → 현재의 느낌’의 순서로 전개하기
-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적절한 어휘로 표현하기

한려 수도의 진주, △△도

낚시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우연히 들렀던 섬에서의 하룻밤……. 주인 내외분은 △△도와 그렇게 만났다고 한다. △△도의 곳곳에는 그날 이후 오늘까지, 지상 낙원을 만들기 위한 주인 내외분의 노력이 진하게 묻어 있었다.

㉠ △△도에서 나는 용기를 생각했다. ‘섬을 만들어 보자’고 결정한 주인 내외분의 결단도 대단하지만, 유희 시설을 결코 허락하지 않은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돈을 벌기보다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는 주인 내외분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노력들을 확인하며 섬을 ㉡ 둘러보는 데는 1시간 30분가량 걸렸다. 잘 가꾼 열대 식물과 화원, 곳곳에 정렬된 조각품들이 꽤이나 인상적이었다. ㉢ 미술 조각품은 예술 작품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품목이다. [㉣] 곱게 다듬어 놓은 산책길을 따라 걸을 때 발 아래 펼쳐지는 해금강에 넋을 빼앗기기도 했다.

지금은 추억 속의 사진으로만 남아 있는 △△도이지만 그곳의 기억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다. 아, 언제 다시 그곳을 밟아 볼 수 있을까.

- ① 첫째 문단에 ‘△△도의 조성 시기’를 추가한다.
- ②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맞바꾼다.
- ③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 부분으로 옮긴다.
- ④ ㉡은 ‘둘러보는’으로 고쳐 쓴다.
- ⑤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11.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접사’의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보기>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어근(語根)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러한 접사는 이전의 단어가 갖는 의미에 세기나 정도가 강화된 의미를 더해 주기도 하고 어떤 단어에 특정한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 ① 드넓은 호수를 바라보니 마음이 평안해졌어.
- ② 잃어버린 줄 알았던 연필을 되찾아서 참 기뻐.
- ③ 야구공에 맞아 얼굴에 시퍼렇게 피멍이 들었어.
- ④ 내 말을 안 들으면 일 년 내내 들볶아댈 줄 알아.
- ⑤ 그렇게만 하면 소금이 안 풀어지니 휘저어 보아라.

12. <보기>의 밑줄 친 상황이 드러나 있는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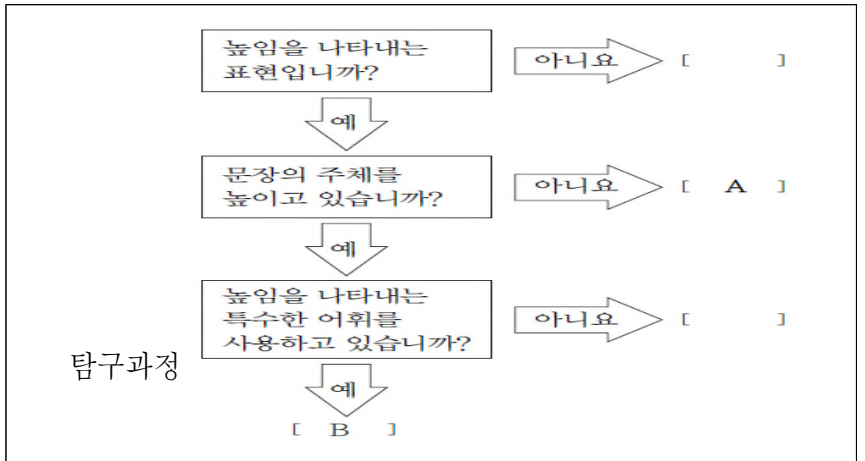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갈 때 우리는 “나 오늘 증명사진 찍으러 간다.”라고 말하곤 한다. 사실 말은 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진을 ‘찍히고’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피동 표현을 사용해야 할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능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관습이 문법을 지배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 ① 사냥꾼이 독수리의 날개를 꺾었다.
- ② 나는 거리에서 엄마를 꼭 껴안았다.
- ③ 선생님, 내일까지 단정히 머리 깎고 올게요.
- ④ 이번 시험에서 풀등을 하다니 정말 잘했구나.
- ⑤ 그녀는 새로 산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3.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탐구 과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차례대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손님을 안방으로 모시다.
- 아버지께서 밖을 보시다.
- 어머니께서는 방에 계시다.
- 할아버지의 옆구리가 쭈시다.



- | | |
|-----------|-----------|
| [A] [B] | [A] [B] |
| ① 모시다 쭈시다 | ② 모시다 계시다 |
| ③ 보시다 계시다 | ④ 보시다 모시다 |
| ⑤ 쭈시다 보시다 | |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늘이 맑았다.’라는 문장과 ‘바다가 푸르다.’라는 문장에서 ‘이’와

고 3

'가'는 주격 조사다. 그 둘은 완전히 똑같은 기능, 완전히 똑같은 문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그 앞의 체언이 폐음절(자음으로 끝나는 음절)로 끝날 때는 '이'가 쓰이고, 개음절(모음으로 끝나는 음절)로 끝날 때는 '가'가 쓰일 뿐이다. 말하자면 우리말에서 '이'와 '가'는 동일한 형태소다.

형태소란, 의미를 지닌 최소의 언어 단위를 뜻한다. 의미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형태적 단위가 형태소다. 형태소는 '하늘', '바다'처럼 독립된 낱말인 것도 있고, '이', '가'와 같은 조사나 '-았-', '-다'와 같은 어미처럼 독립적인 낱말이 아닌 것도 있다. 조사나 어미는 비록 낱말과는 달리 어휘적 의미는 없지만, 문법적 의미는 지닌다. '하늘이 맑았다.'라는 문장은 다섯 개의 형태소를 갖는다. '하늘'과 '맑'이 어휘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라면, '-이'는 주어, '-았-'은 과거 시제, '-다'는 종결이라는 각각의 문법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이'와 '가'로 돌아가자. '이'와 '가'는 완전히 동일한 문법적 의미를 지닌 동일한 형태소이다. 그러나 그 형태는 다르다. 이럴 때, 한쪽을 다른 쪽의 '변이 형태(이형태)'라고 부른다. '이'와 '가' 중 어떤 것이 변이 형태인가를 가려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주격 조사는 '이'가 먼저 나타났지만, 공시적으로 보면 한국어의 주격 조사는 '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별이 쉬운 경우도 많다. '(손을) 씻(다)'와 같은 동사는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 '저(으니)', '저(어서)'처럼 '저'로 변한다. '씻(다)'가 기본형이므로 '저'를 변이 형태로 볼 수 있다.

변이 형태는 그것이 나타나는 조건에 따라 음운론적 변이 형태, 형태론적 변이 형태, 자유 변이 형태로 나뉜다. 음운론적 변이 형태는 앞뒤 환경의 음운에 따라 결정되는 변이 형태다. 위에서 본 '이'와 '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조사 '은'과 '는', 접속 조사 '와'와 '과'도 마찬가지다. 폐음절 뒤에는 앞쪽의 형태가 오고, 개음절 뒤에는 뒤쪽의 형태가 오는 것이다. '씻'과 '저' 역시 음운론적 변이 형태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고립적으로 쓰일 때는 '것'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다.

형태론적 변이 형태는 한 형태소가 다른 특정한 형태소와 어울릴 때에 나타나는 변이 형태다. 일인칭 대명사 '나'는 주격 조사 '가' 앞에서는 '내'라는 변이 형태를 취하고 이인칭 대명사 '너' 역시 주격 조사 '가' 앞에서는 '네'라는 변이 형태를 취한다.

음운론적 변이 형태와 형태론적 변이 형태는 일정한 환경에서 배타적으로 나타난다. 즉 그 분포는 경계가 확연히 구분된다. 주격 조사 '가'가 나올 자리에 '이'가 나올 수는 없고, 일인칭 대명사 '나'가 나올 자리에 '내'가 나올 수는 없다.

반면에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 변이 형태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자유 변이 형태라고 한다. '외다'와 '외우다'는 둘 다 표준어로 인정돼 있어서 서로 뒤바꿀 수가 있다. 또 자유 변이 형태에는 제로(∅) 형태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너를 사랑해.'라는 말과 '너 사랑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의 변화 없이 서로 뒤바꿀 수 있다. 그렇다면 목적격 조사 '를'은 자유 변이 형태로 제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1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변이 형태를 이루는 형태소들은 문법적 기능이 같다.
- ② 형태소는 의미를 갖는 최소의 자립적 언어 단위이다.
- ③ 주된 형태와 변이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④ 변이 형태의 유형은 발생하는 조건에 따라서 구분된다.
- ⑤ 자유 변이 형태를 보이는 형태소들은 교체가 자유롭다.

15.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기>

ㄱ 어제 형을 봤어요. / 산에서 도를 닦다.
 ㄴ 저는 학생입니다. / 제가 그랬어요.
 ㄷ 놀은 멋있어요. / 노을이 참 예뻐요.

- ① ㄱ의 '을/를'과 ㄴ의 '는'은 변이 형태로 제로(∅)를 갖고 있다.
- ② ㄱ의 '을/를'은 음운론적, ㄴ의 '저/제'는 형태론적 변이 형태를 보이고 있다.
- ③ ㄱ의 '을/를', ㄴ의 '저/제'는 각각 사용되는 환경이 중첩되지 않는다.
- ④ ㄱ의 '을/를'은 문법적 의미를, ㄷ의 '놀/노을'은 어휘적 의미를 갖는다.
- ⑤ ㄷ의 '놀/노을'은 형태론적 변이 형태와 자유 변이 형태를 함께 보이고 있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식민지 사학의 여독(餘毒)으로 인해 우리에게 있어서 대원군(大院君)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 부정적인 경향이 있으나 이는 잘못 배운 역사이다. 대원군은 조선 왕조사에서 가장 영명한 지도자 중의 하나였는데, 그가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개혁 의지 때문이다.

대원군의 개혁으로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서원(書院)의 철폐였다. 32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원 600여 개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철폐하는 데에는 대단한 저항과 모험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았으나 대원군은 “설령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이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같은 서원 철폐는 도탄에 빠져 있던 백성을 구원한다는 애민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서원 철폐는 주자 예법(洙子禮去)을 개혁했다는 점과 더불어 중화 사상의 탈피와 이를 통한 자주 의지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처사였다.

대원군의 개혁 의지가 겨냥한 두 번째의 사안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의 강화였다. 조선조 후기에 들어와 왕권이 약화된 데에는 군주의 나약과 무능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로는 조정의 당파(黨派)가 왕권의 견제 역할을 함으로써 군주의 절대권이 약화되었다는 점과 척신(戚臣)의 세도 정치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대원군은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친부(宗親府)를 강화하여 척족에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친부의 강화책은 결국 씨족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고, 더구나 ㉠ 파벌에 초연해야 할 집권자로서 끝내는 당색(黨色)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대원군의 개혁 의지로서 세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쇄국책(鎖國策)이다. 이 쇄국 정책은 오랫동안 대원군을 역사적으로 비난하는 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심증을 이해하거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가장 고통을 겪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일본 식민지 사학자들의 일방적인 비난이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대한 정평(定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의 시점에서 본다면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비난받을 여지가 많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 정세와 대원군의 심정을 훑어보면 ‘개국(開國)이야말로 매국(賣國)이요 망국(亡國)이요 위국(危國)’이라는 대원군의 확신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 그의 정책이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던 아니든 간에 당시의 그의 결심은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에는 틀림없다.

대원군은 선악(善惡)을 함께 갖춘 야누스적 인물이었다. 그는 후대의 사가(史家)들에게 비난을 받을 처사도 저질렀고, 칭송받을 처사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식민지 사학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대원군과 빙탄(氷炭)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화파가 혁명에 성공한 후 표방한 개혁안 제1조가 “머지않은 날에 천진(天津)에 납치되어 있는 대원군을 되돌아오게 한다.”는 점이었던 사실은 그가 전적으로 수구적인 인물이기만 했겠는가, 그리고 개화파와 대원군과는 어떤 동질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문제를 재조명(再照明)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휘 풀이] 1) 빙탄(氷炭) - '얼음과 숯'이라는 뜻으로 서로 정반대가 되어 용납하지 못하는 관계를 이르는 말.

1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식민사학의 영향으로 대원군에 대한 평가는 그 동안 부정적이었다.
- ② 서원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일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
- ③ 대원군은 중화 사상에서 탈피하여 자주적인 의식을 가진 인물이었다.
- ④ 조선 후기 척신의 세도 정치는 왕권을 약화시켰던 원인 중의 하나였다.
- ⑤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통해 종친부를 강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17. 위 글을 통해 추리할 수 있는 글쓴이의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기존의 일방적 평가를 반박한다.
- ② 정당한 평가와 비판을 동시에 고려한다.
- ③ 향후의 재평가를 위한 단서를 제공한다.
- ④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의도를 고려한다.
- ⑤ 동일한 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한다.

18. ㉠과 같은 판단에 전제된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집권자는 파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② 당색은 집권자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이다.
- ③ 종친부 역시 하나의 파벌에 불과한 것이다.
- ④ 군주권의 강화는 집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 ⑤ 종친부는 왕권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19. ㉡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3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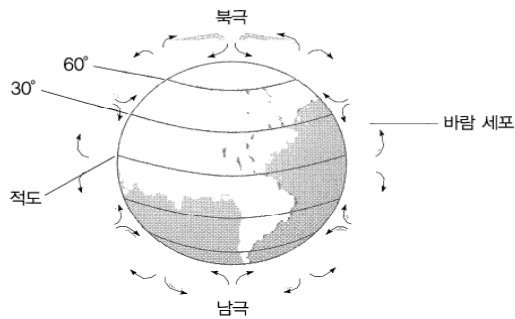
대원군의 쇄국은 나라를 지킨 훌륭한 정책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 ① 네잎 클로버는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하기에,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잎 클로버를 찾아서 수집한다.
- ②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 하더라도 자식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면, 마땅히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
- ③ 규칙에 융통성을 부여하다 보면 규칙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한번 정해진 규칙은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
- ④ 과거에는 높이 평가되어 추앙을 받던 사람들 중에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똑같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 ⑤ 현대인들은 자신의 편리를 위해 기계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오늘날에는 그 기계 문명에 의해 노예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고 3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㉞ [지구상에 부는 바람은 온도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바람 세포의 회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적도에서는 열대의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여 바깥쪽으로 향하고 거기에서 냉각된 후 위도 30° 부근에서 지표로 내려온다. 마찬가지로 북극과 남극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위도 60° 부근에서 다시 상승한다. 이처럼 열에 의해 생기는 적도와 양극의 바람 세포 중간에 중위도의 바람 세포가 있다. 이 ㉞ 중위도의 바람 세포는, 양극의 바람 세포가 위를 향해 미는 힘과 적도의 바람 세포가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 사이에 끼어 마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순환한다.]



이 같은 바람 세포의 회전은 열을 열대로부터 양극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상의 일반적인 몇 가지 패턴이 나타난다. 양극처럼 기류가 아래로 향하는 곳에서는 고압대가, 위도 60° 근처처럼 공기의 흐름이 상승하는 곳에서는 저압대가 일정하게 나타난다. 중위도의 바람 세포와 열대의 바람 세포가 부딪치는 위도 30° 부근에서는 하강하는 공기가 고압과 약한 바람 지대를 만들어 내는데, 이 지대를 '아열대무풍대'라고 한다. 그리고 적도 근처에서 상승하는 열대 공기는 '열대무풍대'라고 불리는 저압대를 만든다. 이곳에서는 공기가 일반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적도의 바다는 대개 잔잔하다.

바람은 더운 열대와 추운 극지방의 온도 차이뿐만 아니라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에서도 일어난다. 육지는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으며, 바다는 그것이 서서히 이루어진다. 해가 뜨면 육지는 빨리 따뜻해져서 공기가 팽창하면서 상승하고, 바다의 차가운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며, 육지에는 저기압대가 형성된다. 해가 지면 육지는 냉각되어 바람의 방향은 거꾸로 바뀐다. 이것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해륙풍이다. 대륙 전체의 온도와 바다의 온도가 계절마다 다르면 이 온도 차이에 의해 바다와 육지 사이에 바람의 순환이 생긴다. 아시아에서 몬순이라고 불리는 계절풍은 계절마다 일어나는 해륙풍인데, 몬순은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분다. 이 계절풍의 풍향은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선원들은 나침반을 갖지 않고서도 이를 안내인으로 삼아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 해안까지 항해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었다.

㉟ [그런데 지구상에 부는 바람은 온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전에도 영향을 받는다. 19세기 프랑스 수학자 코리올리는 회전면을 가로지르는 것은 회전의 방향에 따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관찰했다. 지구는 동쪽으로 회전하므로 북반구상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모두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기울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기울는 경향이 생긴다. 이를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코리올리의 힘'이라고 하는데, 이 '코리올리의 힘' 때문에 지구상의 바람은 곧장 북이나 남으로 불지 않고 편동풍이나 편서풍이 된다.]

20. 위 글은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가?

- ① 바람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 ②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③ 바람이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바람 세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가?
- ⑤ 지구상에 부는 바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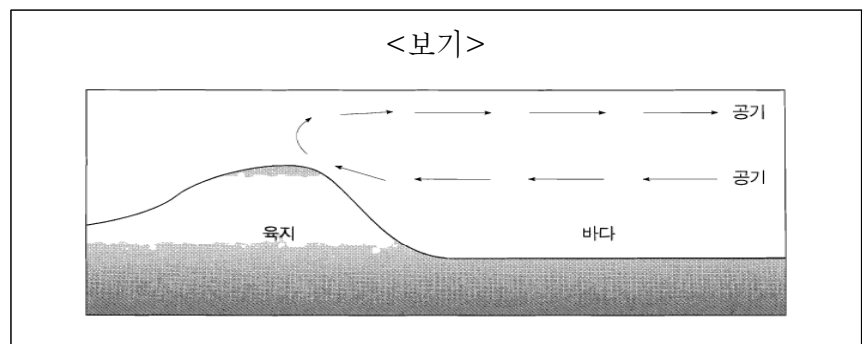
21.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극의 바람 세포 : 냉각된 공기가 하강하면서 극 쪽에서 적도 쪽으로 회전한다.
- ② 중위도의 바람 세포 : 대략 위도 30°에서 60° 사이에 분포한다.
- ③ 바람 세포의 회전 : 열을 열대에서 양극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 ④ 아열대무풍대 : 바람이 약한 고압 지대가 형성된다.
- ⑤ 열대무풍대 : 바람이 많이 불어 배가 빠르게 항해할 수 있다.

22. ㉞를 바탕으로 ㉞과 관련하여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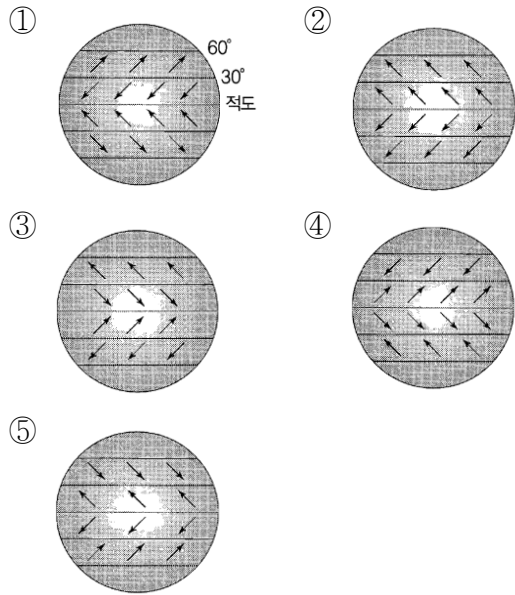
- ① ㉞에서는 다른 위도의 바람 세포에서보다 공기의 흐름이 훨씬 빠르게 일어난다.
- ② ㉞은 열대와 극으로부터 공기가 유입되므로 다른 위도의 바람 세포보다 그 층이 더 두껍다.
- ③ ㉞에서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충돌로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면서 많은 비를 내린다.
- ④ ㉞에서는 다른 위도의 바람 세포에서와 반대로 따뜻한 공기는 하강하고 차가운 공기는 상승한다.
- ⑤ ㉞은 열대와 극의 바람 세포와 맞물려 회전하므로 다른 위도의 바람 세포보다 회전력이 떨어진다.

23. <보기>의 그림에 나타난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낮에 부는 바람이다.
- ② 여름에 부는 계절풍이다.
- ③ 육지에 저기압대가 형성되어 생긴다.
- ④ 인도에서 이집트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다.
- ⑤ 바다보다 육지가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에 나타난다.

24. ㉠과 ㉡의 설명을 고려할 때, 위도에 따라 지구상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3점]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종이에 연필로 어떻게 글씨를 쓸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면 먼저 연필심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알아야 한다. 연필심의 원료는 점토와 흑연이다. 제조 공장에서는 이들 재료에 물을 넣고 잘 섞어 심의 굵기에 맞추어 기다란 모양으로 만든다. 이렇게 길게 뽑아 낸 것을 약 1,000℃에서 구워 굳힌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기름에 담그면 연필심이 완성된다. 고온으로 원료를 구워 내기 때문에 점토가 흑연을 감싸안은 형태로 굳고, 기름에 담그는 과정을 통해 흑연과 점토 입자 사이에 기름이 침투하기 때문에 글씨가 부드럽게 써진다.

연필로 종이에 글씨를 쓴다는 것은 연필심을 종이에 마찰시켜 들러붙게 하는 것이다. 종이는 언뜻 보면 표면이 매끄럽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표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쓰면 연필심 안의 흑연이 점토와 함께 깎여 종이의 섬유 틈 사이로 들어간다. 즉, 연필로 쓴 글자는 종이의 섬유 속에 얽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도 점토나 흑연이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것이다.

그러면 종이에 연필로 쓴 글자를 지우개로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우개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지우개의 원료는 염화비닐수지, 가소제인 디옥틸프탈레이트, 그리고 세라믹스 분말을 1 : 1.5 : 0.5의 비율로 혼합하여 쓴다. 이들 원료를 잘 혼합한 다음 120~130℃에서 약 1시간 정도 가열하여 고체로 만든다. 이렇게 가열하는 것은 수지분자의 결합을 완화시켜 그 사이에 가소제가 흘러들어가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때 가열 상태가 핵심이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비닐 호스처럼 단단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완성된 지우개는 염화비닐이 가소제를 감싸안은 구조다.

가소제는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자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분자 구조는 연필심의 흑연과 비슷하다. 그 때문에 가소제와 흑연은 친화성이 강해 서로 끌어당긴다. 다시 말해서 가소제에 흑연이 접촉하면 마치 자석처럼 물리적으로 달라붙어 종이 틈에 들어 있던 흑연이 제거되는 것이다. 또한

연필심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원료인 점토는 비닐수지나 가소제에 접촉되어 떨어져 나간다. 지우개의 원료인 염화비닐수지는 이러한 가소제를 함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틀이다. 만약 가소제 없이 염화비닐만으로 종이에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려고 하면 종이 표면에서 미끄러지기만 할 뿐 글씨를 지울 수는 없다. 또 지우개에 혼합되어 있는 세라믹스 분말은 종이를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로 깎아 내어 종이의 섬유 속의 흑연을 가소제와 접촉하게 하기 위한 연마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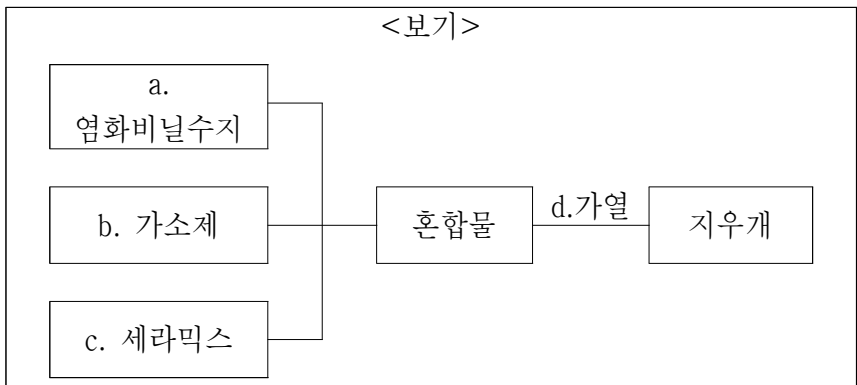
이와 같이 종이에 쓴 글자를 지우는 원리를 알아 두면 보통 지우개를 사용할 때 문지르는 동작을 반복하지만 사실은 몇 번 짹 누르기만 해도 연필로 쓴 글자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위 글을 참고로 할 때, <보기>의 질문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대답한 것은?

<보기>
표면이 완전히 매끄러운 셀로판지 위에 연필로 글씨를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

- ① 셀로판지 표면 속으로 연필심 속의 흑연과 점토가 깎여 들어가 글씨가 써지게 될 것이다.
- ② 연필심 속의 흑연은 떨어지지 않고 점토만 떨어져서 셀로판지의 표면 위에 붙게 될 것이다.
- ③ 셀로판지와 연필심 속의 흑연이 서로를 밀어 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글씨가 써지지 않을 것이다.
- ④ 흑연과 점토가 서로 결합하려는 성질이 강해서 셀로판지의 매끄러운 표면 위에 붙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 ⑤ 셀로판지의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연필심 속의 흑연이나 점토가 셀로판지 표면과 마찰을 잘 일으키지 않아 글씨가 잘 써지지 않을 것이다.

26.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 ① a는 b를 담고 있는 전체적인 틀로서의 역할을 한다.
- ② a와 c는 종이 속의 점토가 흑연과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도록 한다.
- ③ b는 연필심의 흑연과 분자 구조가 같기 때문에 종이 위의 흑연을 잡아당긴다.
- ④ c는 종이의 섬유질을 마모시켜 b와 종이 위의 흑연이 결합하도록 도와준다.
- ⑤ d는 a의 분자 결합을 약화시켜 a와 b가 쉽게 결합하도록 도와준다.

27. 위 글과 <보기>를 참고로, 연필심과 샤프펜슬 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샤프펜슬 심은 흑연과 탄화한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여 만든다. 흑연과 합성수지를 잘 반죽한 혼합물을 1,000℃의 고온에서 찌는 과정에서 수지 속의 불필요한 성분은 날아가고 탄소 원자가 사슬 모양의 분자 구조로 바뀌어 흑연과 함께 검은 재가 된다. 즉, 연필심의 경우 흑연은 ‘떡’, 점토는 ‘몸’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샤프펜슬 심의 경우는 흑연만이 아니라 수지 역시 ‘떡’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샤프펜슬 심의 농도는 원료의 배합에 따라 달라진다. 흑연이 많으면 부드럽고 진한 심이 되고, 합성수지가 많으면 단단하고 옅은 심이 된다.

- ① 연필심의 점토와 달리 샤프펜슬 심의 합성수지는 ‘떡’ 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 ② 연필심과 샤프펜슬 심은 모두 재료의 배합 비율에 따라 농도와 단단함의 정도가 달라진다.
- ③ 연필심과 샤프펜슬 심은 고온으로 구워 내는 과정을 통해 흑연의 분자 구조가 바뀌게 된다.
- ④ 샤프펜슬 심은 전체가 ‘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필로 쓴 것보다 지우기가 더 쉬울 것이다.
- ⑤ 종이 위에 연필로 쓴 글씨나 샤프로 쓴 글씨는 모두 흑연이 지우개의 가소제에 붙어 없어짐으로써 지워지게 된다.

[28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진기가 만들어진 직후에는 사진을 예술로 인식하지 않았다. 사진이 예술의 영역에 들어온 것은 근대 이후로, 사진 예술은 195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으로 나누어진다. 사진 예술을 두 시기로 나눈 요인 중 결정적인 것은 ‘사진의 시간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근대 사진의 중심을 이룬 것은 다큐멘터리 사진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인간의 생활 문제이다. 따라서 근대 사진까지만 해도 시간이나 공간의 의미나 특성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시·공간의 일치로서의 ‘사건’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굳이 구별하자면 근대 사진은 시간보다 공간을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 또는 사건이란 것은 현실적 부피와 질량을 가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서 비로소 감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대가인 카르티에-브레송은 자신의 작품을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근대 사진의 특성을 대표하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이 말을, ‘순간’이라는 낱말 때문에 ‘시간’을 강조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카르티에-브레송이 말한 ‘결정적 순간’은 어떤 극적 ‘사건’을 형성하는 ‘결정적’ 순간이지, 시간만이 독자적으로 강조된 형이상학적 ‘순간’은 결코 아니다. 사건과 구도의 극적 일치를 가리키는 ‘결정적 순간’이란 극적 상황의 기막힌 순간 포착 기회로, 시간성이 아니라 조화로운 화면의 공간성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

한편 현대 사진은 공간보다 시간을 더 중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간 형성의 부수적 요소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사진에서는 독자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시간은 시간이 형성하는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때의 공간은 공간 자체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시간을 형상화시켜 주는 부수적 역할을 한다. 시간이 공간을 대동하지 않고 현실화·시각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이 사진에서 자취를 감출 수는 없다. 다만 공간이 독자적 의미를 상실하였음을 뜻하는 것뿐인데, 공간이 독자적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것은 근대 사진의 주된 관심사였던 ‘사건’이 사진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뜻한다.

현대 사진에서 시간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 면모로 영상 형성에 작용하고 있다. 첫째, 시간의 외형적 형태이다. 현대 사진의 개막과 함께 단순한 공간 인식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는 영상이 등장하였는데, 사물의 움직임은 그대로 영상화한 것이다. 현대 사진은 사진에 시간성을 부여하여 그림처럼 감상 대상이었던 사진이 현실로 살아나 스스로 움직이게 했다. 흔들림, 초점 흐림 등은 외형적으로 영상에 움직임을 부여해 시간의 자국을 보여 주었고, 전통적 구도를 무시한 화면 구성, 정상적이지 않은 화조(tone) 등은 사진에 생동감을 부여해 시간의 흔적을 보여 주었다.


현대 사진에 작용하는 시간 인식의 두 번째 경우는 ‘결정적 순간’의 개별화에서 찾을 수 있다. 결정적 순간이 작가마다 다르게 설정되고 인식된다는 뜻이다. 근대 사진에서 ‘결정적 순간’은 ‘사건’을 형성해 주는 완벽한 시·공간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은 객관적으로 누가 보든 ‘결정적’이어서 여러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현대 사진에서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극적 일치에는 별 관심이 없다. 결정적 순간에 대한 감각이나 인식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극적 일치를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대 사진은 시·공간의 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느껴지는 비현실적 영상이 주류를 이룬다. 비현실적 영상에

서는 공간성은 배제되고 시간성만 강조되는 것이다. 현대 사진에는 시간과 공간을 사건화하지 않고 ‘이미지화’한다. 생활과 사건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언어로 설명이 가능한 문학적 의미의 사건이 아니라 시각으로밖에 전달이 되지 않는 시각적 의미의 이미지가 사진의 주제인 것이다.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현대 사진에서 공간은 시간을 형상화하는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
 - ② 근대 사진은 주로 시간과 공간이 일치된 극적인 사건을 담고 있다.
 - ③ 현대 사진작가들은 움직이지 않는 대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려 했다.
 - ④ 근대 사진에 비해 현대 사진은 대상에 대한 작가만의 독특한 인식을 중시한다.
 - ⑤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을 구분한 것은 시간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다.

29. 위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점]

<보기>



이 사진은 보도 사진작가인 로버트 카파(Robert Capa, 1913~1954)의 작품 ‘D-데이’로, 작가가 직접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여해 전투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작가가 대상에 초점을 맞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나중에 현상한 사진은 예상했던 것처럼 구도나 초점이 맞지 않아, 작가는 이 작품을 보며 실망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사진이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더욱 절실히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이 사진을 제2차 세계 대전의 보도 사진 중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한다.

- ① 작가가 이 사진을 촬영한 목적은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군.
- ② 작가는 ‘초점 흐림’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현장감을 살릴 수 있었군.
- ③ 후대 사람들이 이 사진을 걸작으로 간주한 것은 사진에서 ‘시간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군.
- ④ 작가가 이 작품을 보고 실망했던 것은 대상을 ‘이미지화’하지 못하고 ‘사건화’했기 때문이로군.
- ⑤ 근대 사진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과 공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완성도가 낮은 사진으로 평가하겠군.

30. 위 글을 읽은 학생이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 설정한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진이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 ② 현대 사진작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촬영 대상은 무엇일까?
- ③ 현대 사진은 시간성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 ④ 대상을 이미지화한 현대 사진작가의 작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⑤ 근대 사진작가들은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고 3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는 어느덧 또 무르녹기 시작하였다. ㉠ 빈대 죽인 피가 여기저기 묻은 양회 담벽에는 철창 그림자가 똑똑히 그려져 있다. 사르는 듯한 더위는 등지고 있는 창 밖에서 등을 탁 치고, 안고 있는 담벽에서 반사하여 가슴을 탁 치고, 곁에 뻥뻥이 있는 사람의 열기로 온몸을 썩인다. 게다가 뚱오줌 무르녹은 냄새와 살 썩은 냄새와 움 약 내에 매일 수없이 흐르는 땀 썩은 냄새를 합하여, 일종의 ㉡ 독가스를 이룬 무거운 기체는 방에 가라앉아서 환기까지 되지 않았다. 우리의 피곤해서 둔하게 된 감각으로도 넉넉히 깨달을 수 있는 역한 냄새였다. 간수가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보니 생각나거니와 나쁜 아니라 온 사람의 몸에는 종기 투성이었다. 가득 차고 일변 증발하는 변기 위에 올라앉아서 뒤를 볼 때마다 역정 나는 독한 습기가 엉덩이에 묻어서 거기서 생긴 종기를 이와 빈대가 온몸에 퍼져서 종기 투성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 땀은 온몸에서 똑똑 - 이라는 것보다 짹짹 흐른다.

“에-땀.”

나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이상한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었다. 밥 먹은 뒤에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면, 이삼십 분 뒤에는 그 물이 모두 땀으로 되어 땀구멍으로 솟는다.

폭포와 같다 하여도 좋을 땀이 목과 가슴으로 흘러서, 온 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같이 그 불쾌함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땀을 씻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면 초열지옥 에라도 떨어질 것같이, 흐르는 땀을 씻으려는 사람도 없다.

‘얼핏 진찰감(診察勘)에 보내어 다고.’

나의 피곤한 머리는 이렇게 빌었다. 아침에 종기를 핑계 삼아 겨우 빌어서 진찰하러 갈 사람 축에 든 나는 지금 그것밖에는 바랄 것이 없었다. 시원한 공기와 넓은 자리를 (다만 이십 분 동안이라도) 맛보는 것은, 여간한 돈이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입감 이래로 안부는커녕 어느 감방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우의 소식을 알지도 모르겠다.

즉, 뜻하지 않게 눈에 떠오른 것은 집안의 일이었다. ㉤ 희다 못하여 노랗게까지 보이는 햇빛에 반사하는 양회 담벽에 먼저 담배와 냉수가 떠오르고 나의 넓은 자리가 (처음 순간에는 어렵풋하였지만) 똑똑히 나타났다. (어찌하여 그런 조그만 일까지 똑똑히 보였던지 아직껏 이상하게 생각하거니와) 파리 한 마리가 성냥갑에서 담배갑으로 도로 성냥갑으로 왔다갔다 한다.

“쌩!”

나는 뜨거운 기운을 내뿜었다.

㉥ “파리까지 자유로 날아다닌다.”

성내려야 성낼 용기도 없어진 머리로 억지로 성을 내고, 눈에서 그 그림자를 지워 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담배와 냉수는 곧 없어졌지만, 성가신 파리는 끝끝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중략)

달고 맑은 새 공기를 들이마시는 처음 순간에는 기절할 듯이 기뻐다. 서늘한, 좋은 일이었다. 아까는 참말로 더웠는지, 더웠으면 그 더위는 어디로 갔는지, 진찰감으로 가는 동안 오히려 춥다 하여도 좋을 만치 서늘하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기쁜 것은 거기서 아우를 만난 일이었다.

“어느 방에 있니?”

나는 머리를 간수에게 향한 채로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사감 이방에 ……”

나는 좀 있다가 또 물었다.

“몇 사람씩이나 있니? 답지?”

“모두들 살이 뚱뚱 부었어…….”

“도둑놈들. 우리 방엔 사십여 인이 있다. 몸뚱이가 모두 썩는다. 집엔 오히려 넓어서 걱정인 자리가 있건만 ……너 그새 앓지나 앓었니?”

“감옥에선 앓을래야 병이 안 나. 더워서 골치만 쏘디…….”

“어떻게 여기(진찰감) 왔니?”

“배 아프다구 거짓부리 하구 ……”

“난 종기 투성이다. 이것 봐라.”

하면서 나는 바지를 걷고 푸릿푸릿한 종기를 내어놓았다.

“그런데 너의 방엔 움쟁이는 없니?”

“왜 없어 ……”

그는 누구도 움쟁이고 누구도 움쟁이고, 알 이름 모를 이름 하여 한 일여덟 사람 부른다.

“그런데 집에서 면회는 왜 안 오는데 ……”

“글세 말이다. 모두들 죽었는지 ……” (중략)

“다 무슨 변이 생겼나 부다.”

“그래도 어제 공판 갔던 사람이 재판소 앞에서 만형을 봤다는데 ……”

아우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 아우의 ‘봤다는데’라는 말과 함께,

“천십칠 호!”

하고 고향치는 소리가 귀에 울리었다. 그것은 내 번호였다. / “네!”/ “딘찰”

나는 빨리 일어서서 의사의 앞으로 갔다.

㉦ “오데가 아파?” / ㉧ “여기요.”

하고 나는 바지를 벗었다. 의사는 내가 내어놓은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갈핏 들여다보고, ‘요만 것을 …….’ 하는 듯한 얼굴로 말없이 간병수에게 내어 맡긴다. 거기서 껌진껌진한 고약을 받아서 되는 대로 쥐어바르고 이번엔 진찰 끝난 사람 축에 앉았다.

이때에 아우는 자기 곁에 앉은 사람과 (나 앉은 데서까지 들리도록) 무슨 이야기를 동동 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간수를 보았다. 간수는 아우를 주목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기지개를 하는 듯 손을 들었다. 아우는 못 보았다. 이번은 크게 기침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못 들은 모양이었다.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알뤄야 할 테인데 …….’

몸을 움츠름츠름하여 보았지만, 그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냥 그치지 않고 하다가, 간수가 두어 걸음 자기에게 가까이 올 때야 처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시치미를 떼었다. 그러나 간수는 용서하지 않았다. 채찍의 날카로운 소리가 한 번 나는 순간, 아우는 어깨에 손을 대고 쓰러졌다.

피와 열이 한꺼번에 솟아올라 나는 눈이 아뜩하여졌다. 좀 있다가 감방으로 돌아올 때에 재빨리 결눈으로 아우를 보니 나를 보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여 있었다.

무엇이 어리고 순결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였나?

나는 바라고 또 바라던 달고 맑은 공기를 맛보는 맛보았지만, 이를 맛보기 전보다 더 어둡고 무거운 머리를 가지고 감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 김동인, 태형(笞刑)

31.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등장 인물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연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소설 내의 인물이 다른 인물의 언행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외적 행동만을 사실적으로 전달하여 객관적인 느낌을 준다.
 - ④ 소설 바깥의 인물이 사건을 주도해 가며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⑤ 등장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 사실감을 느낄 수 있다.

32. 인물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발상과 표현 면에서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눈물겹도록 슬픈 일이 있다면 / 그건 / 아름답다.
 - ②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붉어지고 /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 ③ 푸른 산이 흰구름을 지니고 살 듯 /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 ④ 지금 눈 내리고 /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 ⑤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 간간이 / 자유를 말하는 데 /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33. ㉡과 ㉢을 희곡으로 꾸밀 때, 각각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 ① 반가운 얼굴로 | 판청을 피우며 |
| ② 귀찮다는 듯이 | 아픔을 감추며 |
| ③ 궁금한 표정으로 | 의기양양하게 |
| ④ 심드렁한 목소리로 | 눈치를 살피며 |
| ⑤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

34.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보기>

소설을 감상할 때 주목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서술 방법이다. 이때 서술 방법은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과 같이 극한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을 형상화할 때 작가는 서술을 통해 인물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그리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서술 방법은 내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다음은 위 글의 주인공이 감방을 나온 후에 쓴 일기이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말이지 감방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였다. 땀 냄새, 똥오줌 냄새 등이 만들어 낸 역한 냄새는 독가스라 부를 정도로 지독하여 감방 안을 가득 채웠다. ㉠ 밥을 먹은 후 마신 냉수는 몇 십 분이 지나고 나면 금세 땀으로 흘러 불쾌하기 그지없었으나 땀을 씻으려 손가락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었다. ㉡ 그 때 나의 유일한 소망은 진찰을 나가 맑은 공기를 잠시라도 맛보는 것이었다. 이런 나의 소원은 드디어 이루어져 진찰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맛본 공기는 서늘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더 기쁜 일은 함께 감옥에 갇힌 아우를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 다행히 아우는 나에게 비해서 감옥 생활을 태연히 잘 견디고 있었다. 그런데 ㉣ 의사의 성의 없는 진찰을 받은 나는 대기를 하는 중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아우를 보았다. 마침 간수가 아우를 보고 있었다. 나는 아우에게 어떻게든 신호를 보내려고 했으나 아우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결국 간수에게 채찍으로 맞고 말았다. 그날 ㉤ 감방으로 돌아오는 나의 머리는 무겁기 짝이 없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때 홍시량과 양씨의 딸인 계월은 어릴 적부터 남북을 입은 채 자란다. 어느 날 난을 만나 부모와 이별하고 여공의 도움으로 살아나 평국이라는 이름으로 여공의 아들 보국과 동문수학하여 장원급제한다. 북방의 서달이 침략했을 때 천자는 평국을 원수로, 보국을 중군으로 삼아 출정을 명한다.

이때 원수 본진으로 돌아와서 장대에 높이 앉아 보국을 잡아들이라 호령이 추상갈거늘, 무사 닛을 잃고 중군을 잡아 장대 앞에 꿇리니 원수 꾸짖기를,

“중군은 들으라. 내 만류하되, 자원하여 다짐을 두고 출전하더니 적장의 피에 빠져 대국에 수치를 끼치니, 내 구하지 아니하려다가 더러운 도적의 손에 아니 죽이고 법으로 내가 죽여 제장을 효칙하고자 하여 구함이니 죽기를 설워 말라.”

하여 무사를 호령하여 원문 밖에 내어 베라 하니 제장이 일시에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중군의 죄는 군법을 시행함이 마땅하나 용력을 다하여 적장 삼십여 명을 베고 의기양양하여 적진을 경히 여기다가 패를 보았사오니 한 번 승패는 병가상사라, 복원 대원수는 용서하옵소서.”

하며, 일시에 고두사죄하니 원수 이윽히 생각하다가 속으로 웃고는,

“그대의 목을 베어 제장을 본받게 하자 하였더니 제장의 낮을 보아 용서하거니와 차후는 그리 말라.”

하니 보국이 백배사죄하고 물러나니라.

이튿날 평명에 원수 갑주를 갖추고 말에 올라 칼을 들고 나서며 외치거늘,

“어제는 우리 중군이 패하였거니와 오늘은 내 친히 싸워 너희를 함몰하리라.”

하며 점점 나아가니 적진이 황겁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 이때 악대 분을 이기지 못하여 내달아 싸울새, 십여 합에 이르러 원수

의 검광이 빛나며 악대의 머리 말 아래에 떨어지거늘, 칼끝에 피어 들고 또 중군장 이하영을 베고 칼춤을 추며 본진으로 돌아와 악대의 머리를 함에 봉하여 황송제를 올리니라. 이때 서달이 악대 죽음을 보고 양천통곡하기를,

“이제 명장이 죽었으니 평국을 뉘 잡으리오.”

하니 철통골이 여쭙오되,

“평국을 잡을 계교 있사오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제 아무리 용맹 있으나 이 계교에 빠질 것이니 살펴보옵소서.”

하고 이날 밤에 장졸을 영하에 군사 삼천씩 거느려 천문동 어귀에 매복하였다가 평국을 유인하여 곧 어귀에 들거든 사면으로 불을 지르라 하고 보내니라.

이튿날 평명에 철통골이 갑주를 갖추고 진 밖에 나서며 크게 외치거늘,

“명장 평국은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니 원수 노하여 달려들어 수십여 함에 승부를 이루지 못하더니, 철통골이 거짓 패하여 투구를 벗어 들고 창을 끌고 말머리를 돌려 천문동으로 들어가거늘 원수 따라갈새, 날이 이미 저물었는 지라. 원수 적장의 피에 빠진 줄을 알고 말을 돌리려 할 즈음에 사면으로 난데없는 불이 일어나 화광이 충천하거늘, 원수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길이 없어 양천탄식하기를,

“나 하나 죽어지면 천하 강산이 오랑캐 놈의 세상이 되리도다. 하물며 잃은 부모를 다시 못 볼 것이니 이를 어찌할 일리오.”

하다가 문득 생각하고 선생이 주신 봉서를 내어 급히 떼어 보니, 봉서 속에 부작을 써 넣었으니 천문동 화재를 만나거든 이 부적을 각방에 날리고 용자를 세 번 부르라 하였거늘, 원수 크게 기뻐하여 하늘에 축수하고 부적을 사방에 날리고 용자를 세 번 부르니, 이윽고 서풍이 대작하더니 북방으로 흑운이 일어나며 뇌성벽력이 진동하여 소나기 비가 내리니 화광이 일시에 스러지거늘, 원수 바라보니 비 그치고 월색이 동천에 걸렸는지라.

[중간 줄거리] 서달을 물리치던 중 계월은 벽파도에서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고 환궁한다. 어의에 의해 우연히 여자임이 밝혀진 계월은 황제의 명에 따라 보국과 혼인하게 된다.

이때 천자 태사관을 불러 택일할새, 마침 삼월 망일이라. 택일 관자와 예단할 비단 수천 필을 봉하여 위공의 집으로 보내니라. 위공이 택일 관자를 가지고 계월의 침소에 들어가 전하니 계월이 말하기를,

“보국이 전일 중군으로서 소녀의 부리던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의 아내 될 줄을 알았으리오. 다시는 군례를 하지 못할까 하오니 이제 망종 군례나 차리고자 하오니 이 뜻을 천자에게 상달하소서.”

위공이 즉시 천자에게 주달하니 천자 즉시 군사 오천과 장수 수백여 명을 갑주와 기치, 창검을 갖추어 원수께 보내니 계월이 여복을 벗고 갑주를 갖추고 용봉화월과 수기를 잡아 행군하여 별궁에 좌기하고 군사로 하여금 보국에게 전령하니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측량할 길 없으나 전일 평국의 위풍을 보았는지라 군령을 거역하지 못하여 갑주를 갖추고 군문 대령하니라.

이때 원수 좌우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중군이 어찌 이다지 거만하뇨. 바빠 현신하라.”

호령이 추상갈거늘 군졸의 대답 소리 장안이 끊는지라. 중군이 그 위엄에 황겁하여 갑주를 끌고 몸을 굽혀 들어가니 얼굴에 땀이 흘렀는지라. 바빠 나가 장대 앞에 엎드리니, 원수 정색하고 꾸짖기

를,

“군법이 지중하거늘, 중군이 되었거든 즉시 대령하였다가 명 내림을 기다릴 것이거늘, 장령을 중히 여기지 않고 태만한 마음을 두어 군령을 게을리하니 중군의 죄는 만만무엄한지라. 즉시 군법을 시행할 것이로되, 십분 짐작하거니와 그대로는 두지 못하리라.”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중군을 빨리 잡아내라 하는 소리 추상

[A] 같은지라. 무사 일시에 고향하고 달려들어 장대 앞에 꿇리니 중군이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진정하여 아뢰되,

“소장은 신병이 있어 치료하옵다가 미처 당치 못하였사오니 태만한 죄는 만만무석시오나 병든 몸이 중상을 당하오면 명을 보전하지 못하겠삽고 만일 죽사오면 부모에게 불효를 면하지 못하오니 복원, 원수는 하해 같은 은덕을 내리사 전일 정곡(情曲)을 생각하와 소장을 살려주시면 불효를 면할까 하나이다.”

- 작자미상, <홍계월전>

36. 위 글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를 작성하고자 할 때, 표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성의 사회적 불만과 이상 사회 건설
- ② 유교적 질서 속에서 황폐화되어 가는 여성성
- ③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여인의 활약상
- ④ 신분상의 제약을 극복한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
- ⑤ 자신의 삶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인의 삶의 모습

37. 위 글을 <보기>처럼 도식화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장면㉠] → 계월이 여자임이 밝혀짐 → [장면㉡]

- ① [장면㉠]의 공간은 [장면㉡]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 ② [장면㉠]에서의 사건의 긴박감은 [장면㉡]에 비해 떨어진다.
- ③ [장면㉠]에서의 평국의 위세는 [장면㉡]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 ④ [장면㉠]는 [장면㉡]보다 짧은 시간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 ⑤ [장면㉠]에서의 평국과 보국의 갈등은 [장면㉡]에서 더욱 해소된다.

38. <보기>는 여성 영웅 소설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 중,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3점]

<보기>

여성 영웅 소설 역시 남성 영웅 소설과 마찬가지로 ‘군담’이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잃어 버렸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 전쟁을 통한 능력 발휘가 필수적인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황제는 이를 막을 목적으로 주인공으로 하여금 군대를 지휘하게 한다. ㉠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 전쟁에 참여한 주인공은 ㉡ 적장들을 손쉽게 제거한다. 간혹, ㉢ 전쟁 중에 적장의 간계에 의해 위기에 빠지기도 하지만, ㉣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온다. ㉤ 전쟁 과정 중에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하기도 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9. [A]에서 드러난 ‘원수’와 ‘중군’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수’는 상황의 위급함을 들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고, ‘중군’은 자신의 병을 핑계로 상대방의 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 ② ‘원수’는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거론하며 상대방을 몰아세우고 있고, ‘중군’은 상황의 불가피성을 들어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고 있다.
- ③ ‘원수’는 규율의 엄격함을 말하며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중군’은 규율의 융통성 있는 적용을 강조하며 이에 항변하고 있다.
- ④ ‘원수’는 상대방의 지난 잘못을 조목조목 밝히며 상대방을 성토하고 있고, ‘중군’은 유교적인 도리를 거론하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
- ⑤ ‘원수’는 상대방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기대어 상대방을 문책하고 있고, ‘중군’은 자신의 상황 및 상대방과의 과거의 친분을 들어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엇그제 젊었더니 어찌 이리 다 늙었나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야 서러운 말 하자니 목이 맨다
 부생모욕 신고하야 이 내 몸 길러낼 때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당시의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A] 삼오 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 하였더니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배울 사이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요냐
 스스로 참피하니 누구를 원망하리

[B] 삼삼오오 야유원에 새 사람이 났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으로 어데어데 머무르고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라

인연이 끊겼어도 생각이야 없을소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지나 말으련만
 열두 때 길기도 길구나 서른 날 지루하다
 옥창에 심은 ㉠ 매화 몇 번이나 폼다 졌는고
 겨울 밤 차고 찬 때 자최는 섞어 치고
 여름날 길고긴 때 굶은 비는 무슨 일인고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이 상(床)에 올 때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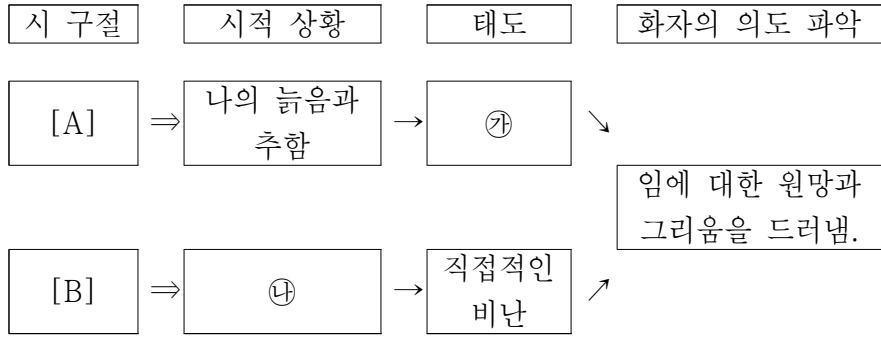
<중략>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고
 천상의 견우직녀 ㉡ 은하수 막혔어도
 칠월칠석 일 년 한번 때마다 만나는데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기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난간에 기대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는 뗏혀 있고 ㉢ 모운(暮雲)이 지나갈 때
 ㉣ 죽림 푸른 곳에 ㉤ 새 소리 더욱 싫다
 세상에 설운 사람 수없이 많겠지만
 박명한 여자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

40.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흐르는 세월에 대해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 ② 내적 번민을 꿈을 통해 해소하려 하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서러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소망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고 3

41. [A]와 [B]를 중심으로 윗글의 내용을 이해할 때, ㉠과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점]



	㉠	㉡
①	솔직한 고백	임의 신의 없음.
②	끊임없는 후회	임의 변덕스러움
③	극복의 의지	임의 끝없는 변명
④	자신의 신세 한탄	임의 방탕한 생활
⑤	극심한 좌절	임의 편중된 학문 자세

42. ㉠~㉣ 중,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감정 이입은 화자가 갖고 있는 감정을 화자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에 붙여넣어서 마치 그 대상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강물도 나와 같아서 울며 밤새워 흐르는구나.'라고 했을 때, 화자는 자신의 슬픔을 강물에 붙여넣어 마치 강물이 슬퍼하며 우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고 있는 사물은 어느 것일까요?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 <길>

(나)
 [A]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 구부러진 길을 가면
 │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B]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C]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 구불구불 간다
 [D]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 는또한 좋다
 ┌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E]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 이준관, <구부러진 길>

4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허무한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② 화자의 상실감이 핵심 정서로 그려져 있다.
 ③ 화자가 추구하거나 바라는 바가 드러나 있다.
 ④ 현실을 비판하는 화자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⑤ 사람들을 훈계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다.

44.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달아 이어진 돌’은 대상을 찾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 준다.
- ② ‘담’은 ‘찾으려는 대상’과 화자를 서로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굳게 닫힌 쇠문’은 찾으려는 대상을 쉽사리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 ④ ‘길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다’는 것은 화자의 노력이 지속적인 의미를 의미한다.
- 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은 화자가 대상을 찾는 일이 어려운 일임을 암시한다.

45. (나)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용상 [A]~[C], [D]~[E]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A]는 화자가 자신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다.
- ③ [B]와 [C]는 [A]와 같이 말한 구체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
- ④ [D]는 [B]에서 체험한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다.
- ⑤ [E]는 [D]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서 보여 주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답 및 해설

1	①	2	④	3	③	4	②	5	③
6	②	7	③	8	⑤	9	①	10	③
11	②	12	③	13	②	14	②	15	⑤
16	⑤	17	⑤	18	③	19	②	20	②
21	⑤	22	④	23	④	24	①	25	⑤
26	②	27	③	28	③	29	④	30	③
31	⑤	32	⑤	33	④	34	⑤	35	③
36	③	37	③	38	④	39	⑤	40	⑤
41	④	42	⑤	43	③	44	①	45	④

[1~3] 화법
[지문 분석]

사회자: 우리 학교의 ‘먹거리 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어머니 도우미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토론 주제 소개]**
학생회 배심원들께서는 학습부장과 자치부장의 의견을 잘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부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사회자의 역할: 토론 진행]**

학습부장: 우리 학교의 ‘먹거리 장터’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공정한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익히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 장터를 운영해야 합니다.**[주장: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해야 한다.]**

사회자: 자치부장께서는 학습부장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사회자의 역할: 토론 진행]**

자치부장: 장터는 수익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먹거리 장터’에서 학생들이 만든 음식은, 외부에 비해 음식의 맛이나 질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남는 장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 도우미를 허용해야 합니다.**[주장: 어머니 도우미를 허용해야 한다.]**

학습부장: 작년의 경우 일부 가게에서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어머니들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내놓는 바람에 학생들의 힘만으로 음식을 준비한 가게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어머니들이 합세한 가게의 수익이 전체 장터 수익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일부 어머니들에 의해 공정한 경쟁의 룰이 깨지면서 나타난 문제였습니다.**[자치부장의 주장의 문제점 제시]**

자치부장: 일부 어머니들이 참여한 가게가 전체 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만든 음식의 맛과 질이 떨어진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학습부장의 주장을 바탕으로 반박]**
애초에 취지만을 강조하다가 학교 ‘먹거리 장터’가 결국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주장: 취지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사회자: 네, 학습부장은 학교 장터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어머니 도우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치부장은 장터의 수익을 고려하여 어머니 도우미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군요. 계속해서 두 분 토론자의 의견을 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사회자의 역할: 토론 진행 과정 정리]**

학습부장: 물론 장터의 수익도 중요합니다.**[자치부장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 그러나 수익을 늘리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무턱대고 어머니 도우미에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장터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자치부장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치부장: 학습부장께서는 본래의 취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요즘 대부분의 다른 학교들은 축제 때 운영한 장터의 수익을 불우 이웃 돕기에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에게만 의미 있는 장터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장터가 되기 위해서라도 어머니 도우미를 허용하여 수익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주장: 어머니 도우미를 허락하여 수익을 늘려야 한다.]**

학습부장: 요즘 많은 학교에서 수익 사업에 초점을 둔 학교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자치부장의 근거를 인정]** 하지만 우리 학교는 예전부터 ‘학생들의 경제관념 함양’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 장터를 운영해 온 만큼,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주장: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자치부장: 바람이 바뀌면 돛의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관용적 표현 활용]** 처음의 취지에만 얽매이다 보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장터도 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두 분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회 배심원들께서는 ‘먹거리 장터’ 운영과 관련된 어머니 도우미 허용 여부를 표결해 주십시오.**[사회자의 역할: 토론 진행]**

[지문 확인]

- * 갈래: 토론
- * 특징: 사회자의 역할과 주장과 반박의 과정이 잘 나타남.

1. <답> ①

학교 축제의 ‘먹거리 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어머니 도우미의 허용 여부에 대해 토론한 내용이다. 학습부장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공정한 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익히자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여, 어머니 도우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치부장은 수익이 남는 장터가 되기 위해 어머니 도우미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두 토론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이유는 ‘먹거리 장터’의 운영 목적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답> ④

토론의 후반부에서 학습부장은 “요즘 많은 학교에서 ~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치부장이 발언한 내용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 학교는 ~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므로,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② 자치부장은 작년에 어머니들이 참여한 가게의 수익이 전체 장터 수익의 70% 이상을 차지했다는 학습부장의 말을 근거로 삼아, “일부 어머니들이 참여한 가게가 전체 수익의 70% 이상을 ~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입니다.”라며 주장을 펼치고 있다.

3. <답> ③

□□ 고등학교가 장터를 통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난치병 치료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는 <보기>의 자료를 ‘우리에게만 의미 있는 장터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장터가 되’어야 한다는 자치부장의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학습부장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먹거리 장터 운영을 주장하고는 있으나, 수익 사업에 초점을 둔 장터 운영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장터 수익으로 난치병 치료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의 자료에서는 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먹거리 장터를 운영했다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7] 화법과 작문

[지문 분석]

(가)

창민 : 누나, 작문 수행 평가 과제로 독서 감상문을 써서 제출해야 돼. 그런데 막상 글을 쓰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담화의 목적 제시 : 독서 감상문의 작성 방법]

화연 : 우리 동생이 작문 수행 평가 과제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긍정적 반응] 먼저 독서 감상문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 글을 쓰기 전에 이글을 왜 쓰는지 생각해 보면 글쓰기의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거든. [구체적 설명]

창민 :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책을 읽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감상문을 작성하라고 안내해 주셨어. 그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네. [상대방의 조언을 긍정적으로 수용]

화연 : 그래. 그리고 독서 감상문을 작성할 때에는 책을 읽게 된 동기, 책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 책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나의 생각과 느낌 등이 잘 드러나도록 처음·중간·끝으로 적절하게 내용을 선별하여 조직하는 것이 좋아. [구체적 설명]

창민 : 음..... 처음 부분에는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지?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고 책의 내용 중 가장 흥미로웠던 점을 서술하면서, 책 내용에 대한 나의 느낀 점을 덧붙여 제시해야겠어. 마지막으로 끝부분에서는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해. [상대방의 조언을 긍정적으로 수용]

화연 : 참, 그리고 독서 감상문을 쓸 때 인상적인 제목을 붙이면 독서 감상문을 읽으시는 선생님께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야. 제목을 작성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책의 주제를 포함하면서 눈길을 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 [구체적 설명]

창민 : 그래? 제목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상대방의 설명을 바탕으로 응용]

화연 : 좋은 생각인데. 그럼 이제 글쓰기 계획부터 하나씩 작성해보도록 하자. [긍정적 반응]

(나)

나는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여 본심 반 장난 반으로 이 책을 접했다. [글을 읽게 된 동기] 옛날에 읽었던 작은 나라 사람들 기억도 나고 해서 말이다. 겉표지부터 신성 모독이니 금서니 하는 말들이 내 흥미를 자극했다.

이 소설은 걸리버가 우연히 소인국, 거인국 등 모두 8곳의 신비

한 나라들을 여행하고 경험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이번에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소인국과 거인국 이야기였다. 「걸리버 여행기」를 처음 읽었을 때는 ‘소인국이니, 대인국이니’ 하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보며 ‘이러니까 동화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쌓은 경험과 배운 지식 등을 떠올려 보니, 이 소설은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한 소설임을 알게 되었다.

소설 속에서 걸리버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소인이 되기도 하고 거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크고 작음의 문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걸리버가 끊임없이 변화듯이, 우리도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변화한다. 나도 변화하고 대상도 변화한다. 이렇게 세계의 모습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내 안에 있는 소인과 거인, 내가 마주치는 소인과 거인을 통해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책의 내용을 자신의 생활에 적용]

새로 읽은 「걸리버 여행기」는 예전과는 다른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 [감상 내용①] 예전에는 단순히 재미로만 읽었지만 다시금 읽어 보니 나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다. [감상 내용②]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생각만 고집하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웠다. [감상 내용③] 이 책을 읽은 후 편협한 시선을 벗어나 다양한 시선과 의견이 존재함을 생각하며 ‘상대성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깊이 다짐하게 되었다. [감상 내용④]

4. <답> ②

(나)에서는 「걸리버 여행기」의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간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5. <답> ③

(가)의 누나와 동생의 대화에서 ‘네가 생각하는 책의 주제를 포함’하며 ‘질문의 형태로 제시한다’는 조건을 고려할 때 ③이 가장 적절하다.

6. <답> ②

대화 (가)에서 둘 모두 상대방의 발언에 ‘좋은 생각인데’ 등과 같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창민은 화연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7. <답> ③

화연의 마지막 발언이 글쓰기 계획부터 작성하자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질문이 가장 적절하다.

고 3

[8~10] 작문

[지문 분석]

건강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 무엇보다 중시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먹거리를 찾고 쾌적한 환경에서 좋은 의료 혜택을 받으며 살고자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문제 상황 제시]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나 경제적 이유로 보건·의료 혜택의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나타내는 개념이 '건강 불평등[중심 화제 제시]'이다.

건강 불평등이란 건강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이나 집단들 사이의 차이(difference), 변이(variations), 격차(disparities)를 지칭하는 것으로, 건강에서의 개인 간 변이가 아닌 사회 경제적 지위나 수준에 따른 건강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개념 정의] '건강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건강 불평등 격차를 낳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소득과 학력이다. 계층 간에 소득과 학력의 격차가 커지면 그것이 건강 불평등 문제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학력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건강 불평등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 격차는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한 편이다. 2013년 9월 3일 국제 구호개발 기구 월드비전이 발표한 전 세계 176개국의 건강 불평등 격차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문제는 2013년 보건 사회 연구원이 암 환자 43,000여 명의 소득 계층별 생존율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한 제시] 똑같이 암에 걸려도 고소득층의 생존율은 저소득층에 비해 뚜렷이 높았으며, 학력 격차에 따른 사망률은 8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소득과 학력의 격차가 지역별 의료 기반 시설의 양극화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의료 소외 계층이 의료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결 방안 제시]

8. <답> ⑤

초고는 우리 사회의 건강 불평등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쓴 글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건강 불평등의 개념을 밝히고, 우리나라의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토대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작문 상황'과 '학생의 초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은 작문이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체의 인식 폭을 넓혀 주는 표현 행위라는 것이다.

9. <답> ①

<보기>를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사망 위험률이 높아졌다. 더불어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단순 노동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는 사실을 통해서 소득 격차가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의 이와 같은 내용은 '학생의 초고'에서 '계층 간에 소득과 학력의 격차가 커지면 그것이

건강 불평등 문제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0. <답> ③

㉠은 <보기>의 계획에 비추어 볼 때 '△△도에서의 느낌'을 서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을 △△도의 풍경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의 자리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번 문법 이론: 단어 형성법

갈래	형태	예
단일어(單一語)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	실질형태소(1개)	집, 떡, 나무, 돌, 노래, 사랑, 울다, 먹다, 몹시.....
복합어(複合語)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	파생어	형식형태소+실질형태소(접사+어근) 맨손, 덧버선, 시퍼렇다.....
	합성어	실질형태소+형식형태소(어근+접사) 선생님, 슬픔, 사랑하다, 높다.....
	합성어	실질형태소+실질형태소(어근+어근) 마소, 손목, 돌다리, 통나무집, 큰집.....

어근(語根)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
접사(接詞)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형식 형태소.

위치에 따라	접두사	어근의 앞에 붙는 것.	예) 맨손, 덧버선
	접미사	어근의 뒤에 붙는 것.	예) 덮개, 지붕(집 + 웅)
가능에 따라	한정적 접사	품사는 바뀌지 않으면서 어근의 뜻만 제한하는 것.	예) 집 + 웅, 덧 + 버선
	지배적 접사	품사를 바꾸는 접사.	예) 덮개(동→명), 사람답다(명→형)

11. <답> ②

<보기>에서는 이전의 단어가 갖는 의미에 세기나 정도가 강화된 의미를 더해 주거나 어떤 단어에 뜻을 더해 주는 접사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②에서 '되-'라는 접두사는 '찾다'라는 단어에 '다시'의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므로 세기나 정도의 강화된 의미를 강조하는 나머지 답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① '드-'는 '심하게' 또는 '높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따라서 '드넓다'는 '활짝 트이고 아주 넓다.'는 뜻이 된다.

③ '시-'는 '매우 길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따라서 '시퍼렇다'는 '매우 퍼렇다.'는 뜻이 된다.

④ '들-'은 '무리하게 힘을 들여', '마구', '몹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따라서 '들볶다'는 '까다롭게 굴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하여 남을 못살게 굴다.'는 뜻이 된다.

⑤ '휘-'는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따라서 '휘젓다'는 '골고루 섞이도록 마구 젓다.'는 뜻이 된다.

12번 문법 이론: 피동(被動)

피동과 능동

피동(被動)	남의 행동을 입어서 하는 동작
능동(能動)	동작주가 제 힘으로 행하는 동작. 피동의 상대적 개념

피동 표현(피동법)

피동사에 의한 피동	동생이 언니에게 업혀었다.
'-어지다'에 의한 피동	사건의 진상이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형태	예
타동사 어근 + 접사(-이-, -히-, -리-, -기-) (능동문 주어 → 부사어, 능동문 목적어 → 주어)	순경이 도둑을 잡았다 → 도둑이 순경에게 잡혀었다 보이다, 놓이다, 잡히다, 들리다(聞), 안기다
모든 용언의 어간 + '-아/-어'(보조적 연결어미) + '지다'(보조동사)	광수가 비로소 그의 오해를 풀었다. → 그의 오해가 광수에 의해 비로소 풀어졌다.(타동사와 결합) 연구진이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 새로운 사실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타동사화한 사동사) 국운이 날로 쇠퇴했다. → 국운이 날로 쇠퇴해졌다.(자동사와 결합)

능동문의 주어가 부정명사 + '에'	폭풍이 온 마을을 휩쓸었다. → 온 마을이 폭풍에 휩쓸렸다.
능동문의 주어가 유정명사 + 에게(한테)	도둑이 경찰에게 잡혀었다.
피동문의 부사어는 명사의 성질에 따라 '에게, 에'보다 '에 의해(서)'가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다.	창수가 바위에 구멍을 뚫었다. → 바위에 구멍이 창수에 의해 뚫려었다. 걸리다(←걸다), 접히다(←접다), 풀리다, 박히다, 묻히다, 끊기다, 닫히다, 풀리다, 찢기다(←찢다)

12. <답> ③

- ③은 내일까지 단정히 머리를 깎고 온다고 하며 능동으로 표현했지만, 의미상 화자가 머리를 깎이고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말은 '깎고' 온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깎이고' 오는 것이다.
- ① 사냥꾼이 독수리의 날개를 꺾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능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② 내가 거리에서 엄마를 꼭 껴안은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능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④ 주어진 문장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끝등을 한 상황에서 '정말

잘했다.'라는 말은 '정말 못했다.'라는 의미이다. 즉, 능동 표현을 사용해 화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말과 반대로 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그녀가 새로 산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능동 표현을 사용하였다.

13번 문법 이론: 주체 높임법

① 주체 높임의 대상

㉠ 문장에서 서술어로 표현되는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
㉡ 말하는 이는 주체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주체 높임의 표현 : 용언의 어간+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

갈래	의미
직접 높임	문장의 주체를 직접적으로 높임
간접 높임	직접적인 높임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체 문장의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면 '-시-'를 붙여서 간접적으로 높임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소유물을 높임 높여야 할 대상과 관계 깊은 것을 높여서 관심과 친밀감을 표시함

13. <답> ②

[A]에는 높임 표현이지만 문장의 주체가 아닌 다른 대상을 높이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고, [B]에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면서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모시다'는 문장의 주체가 아닌 '손님'이라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특수 어휘라 할 수 있다. 또한 '있다'의 높임 표현인 '계시다'는 주체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특수 어휘이다. 즉, [A]에는 '모시다', [B]에는 '계시다'가 들어갈 수 있다. 이를 충족하는 것은 ②이다. '보시다'는 동사의 어간 '보-'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붙어 만들어진 높임 표현이고, '쫓시다'는 '신체의 한 부분이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높임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14번 문법 이론 : 형태소

뜻(의미)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1) 자립성 유무(有無)에 따른 종류

자립 형태소	자립성을 지닌 홀로 설 수 있는 형태소 (예) 철수, 이야기, 책, 어머니, 저녁
의존 형태소	자립성이 없어, 홀로 서기가 어려워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예) 가, 을, 읽-, -었-, -다, 는, 가지-, -고, 들-, -어, 오-, -시-, -었-, -다.

고 3

2) 의미의 유무(有無)에 따른 종류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 (예) 철수, 이야기, 책, 읽-, 어머니, 저녁, 가지-, 들-, 오-
형식 형태소	자립성이 없어, 홀로 서기가 어려워 다른 말에 의존하여 쓰이는 형태소 (예) 가, 을, -었-, -다, 는, -고, -어, -시-, -었-, -다.

3) 형태소의 종류와 문법 요소

자립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의존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실질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
형식 형태소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14. <답> ②

형태소는 의미를 갖는 가장 작은 언어 단위로, 자립성을 지닌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에 의존하여 활용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형태소를 자립적 언어 단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은 1 문단, ③은 3 문단, ④는 4 문단, ⑤는 7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 <답> ⑤

'놀이'는 '노을'의 준말로 표준어이다. 따라서 두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서로 교체가 가능한 자유 변이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놀이'와 '노을'은 조사 '은'이든 '이'든 상관없이 '놀은, 놀이, 노을은, 노을이' 등으로 자유롭게 활용된다는 점에서 형태론적 변이 형태를 보이지는 않는다.

① ㄱ의 '을/를'과 ㄴ의 '는'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는 점에서 제로를 갖는 변이 형태이다.

② ㄱ의 '을/를'은 각각 폐음절, 개음절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음운론적 변이 형태를 보이고 있다. ㄴ의 '제'는 '가'라는 조사와 결합할 때만 사용되므로 '형태론적 변이 형태'를 보이고 있다.

③ 음운론적 변이 형태와 형태론적 변이 형태를 보이는 형태소들은 그 사용 환경이 분리되어 중복되지 않는다.

④ ㄱ의 '을/를'은 조사이므로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 형태소이고, ㄴ의 '놀이/노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므로 어휘적 의미를 갖는 형태소이다.

[16~19] 독서-인문

[지문 분석]

식민지 사학의 여독(餘毒)으로 인해[원인] 우리에게 있어서 대원군(大院君)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아직 부정적인 경향[결과]이 있으나 이는 잘못 배운 역사이다. 대원군은 조선 왕조사에서 가장 영명한 지도자 중의 하나였는데,[글쓴이의 대원군에 대한 평가] 그가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개혁 의지 때문이다.

1문단 : 대원군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대원군의 개혁으로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서원(書院)의 철폐

[대원군의 개혁①]였다. 32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서원 600여 개 중에서 47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철폐하는 데에는 대단한 저항과 모험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많았으나 대원군은 “설령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이는 용납할 수 없다.”[대원군의 말을 직접 인용]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와 같은 서원 철폐는 도탄에 빠져 있던 백성을 구원한다는 애민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서원 철폐는 주자 예법(洙子禮去)을 개혁했다는 점과 더불어 중화 사상의 탈피와 이를 통한 자주 의지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처사였다.[대원군의 서원 철폐의 긍정적 평가]

2문단 : 대원군의 개혁 의지 - 서원 철폐
대원군의 개혁 의지가 겨냥한 두 번째의 사안은 중앙 집권적인 권력의 강화[대원군의 개혁②]였다. 조선조 후기에 들어와 왕권이 약화된 데에는 군주의 나약과 무능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로는 조정의 당파(黨派)가 왕권의 견제 역할을 함으로써 군주의 절대권이 약화되었다는 점과 척신(戚臣)의 세도 정치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조선 후기 왕권 약화의 원인] 대원군은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친부(宗親府)를 강화하여 척족에 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종친부의 강화책은 결국 씨족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고, 더구나 파벌에 초연해야 할 집권자로서 끝내는 당색(黨色)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대원군의 중앙 집권적인 권력의 강화의 한계]

3문단 : 대원군의 개혁 의지 - 중앙집권적 권력의 강화
대원군의 개혁 의지로서 세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쇄국책(銷國策)[대원군의 개혁③]이다. 이 쇄국 정책은 오랫동안 대원군을 역사적으로 비난하는 논거가 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심중을 이해하거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은 채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가장 고통을 겪었던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일본 식민지 사학자들의 일방적인 비난이 대원군의 쇄국 정책에 대한 정평(定評)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오늘의 시점에서 본다면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비난받을 여지가 많다. 그러나 당시의 국제 정세와 대원군의 심정을 훑어보면 '개국(開國)이야말로 매국(賣國)이요 망국(亡國)이요 위국(危國)'이라는 대원군의 확신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의 정책이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든 아니든 간에 당시의 그의 결심은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에는 틀림없다.[대원군의 쇄국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4문단 : 대원군의 개혁 의지 - 쇄국정책
대원군은 선악(善惡)을 함께 갖춘 야누스적 인물이었다.[대원군에 대한 평가] 그는 후대의 사가(史家)들에게 비난을 받을 처사도 저질렀고, 칭송받을 처사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식민지 사학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대원군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그러나 대원군과 빙탄(氷炭)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개화파가 혁명에 성공한 후 표방한 개혁안 제1조가 “머지않은 날에 천진(天津)에 납치되어 있는 대원군을 되돌아오게 한다.”는 점이었던 사실은 그가 전적으로 수구적인 인물이기만 했겠는가, 그리고 개화파와 대원군과는 어떤 동질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문제를 재조명(再照明)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대원군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

5문단 : 대원군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

[어휘 풀이] 1) 빙탄(氷炭) - '얼음과 숯'이라는 뜻으로 서로 정반대가 되어 용납하지 못하는 관계를 이르는 말.

• 해제 :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원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부정적인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대원군을 조선 왕조사에서 뛰어난 지도자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그의 개혁 의지를 들고 있다. 글쓴이는 대원군의 의지,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원군의 개혁 의지가 드러난 정책을 살펴면서, 그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는 비판적 평가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주제 : 대원군의 개혁 의지와 재평가의 필요성

[지문 확인]

1문단 : 대원군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 대원군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
대원군은 조선 왕조사에서 가장 영명한 지도자 중의 하나였다.

2문단 : 대원군의 개혁 의지 - 서원 철폐

• 대원군의 서원 철폐는 도탄에 빠져 있던 백성을 구원한다는 애민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3문단 : 대원군의 개혁 의지 - 중앙 집권적 권력의 강화

• 대원군의 중앙 집권적 권력의 강화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4문단 : 대원군의 개혁 의지 - 쇄국정책

• 시대착오적인 것이었던 아니든 간에 당시의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에는 틀림없다.

5문단 : 대원군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

16. <답> ⑤

이 글에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그가 쇄국 정책을 통해 종친부를 강화하고자 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대원군이 민생을 구원하기 위해 서원을 철폐했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답> 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료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대원군에 대한 재평가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일한 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② 3문단의 종친부 강화를 통한 군주권 강화의 정책에 대한 언급, 마지막 문단에서 대원군을 '선악을 함께 갖춘 야누스적 인물'로 평가한 데서 추리할 수 있다.

18. <답> ③

①에는 '집권자는 파벌, 즉 당파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해야 한다.'

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집권자가 당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어느 특정 파벌에만 관심이 편중되었음을 의미한다. 문맥으로 보아 그 특정 파벌은 '종친부'이다 즉, 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종친부를 강화하려 했지만, 종친부의 강화는 또 다른 파벌의 형성을 의미하므로, 결과적으로 당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19. <답>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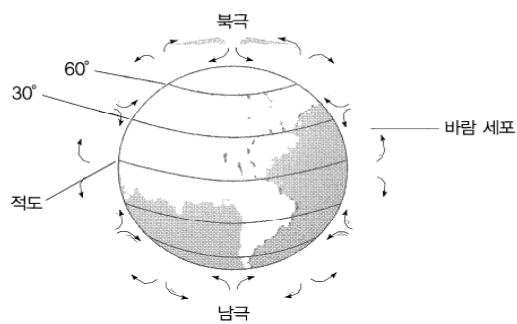
①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면, 여기에는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시대착오적이었던 아니든 간에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므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1개입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야 어쨌든 그 동기가 좋으면 훌륭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건을 흠친 것(결과)과는 상관없이, 자식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동기가 선한 것이므로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②와 유사한 사고 과정이다.

[20~24] 독서-과학

[지문 분석]

지구상에 부는 바람은 온도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바람 세포의 회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지구의 바람]우선 적도에서는 열대의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여 바깥쪽으로 향하고 거기에서 냉각된 후 위도 30° 부근에서 지표로 내려온다. 마찬가지로 북극과 남극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위도 60° 부근에서 다시 상승한다.[각 위치별 바람의 특징] 이처럼 열에 의해 생기는 적도와 양극의 바람 세포 중간에 중위도의 바람 세포가 있다. 이 중위도의 바람 세포는, 양극의 바람 세포가 위를 향해 미는 힘과 적도의 바람 세포가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 사이에 끼어 마치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돌면서 순환한다.

1문단 : 바람 세포의 회전(위도에 따른 온도 차이)으로 발생하는 바람



이 같은 바람 세포의 회전은 열을 열대로부터 양극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상의 일반적인 몇 가지 패턴이 나타난다. 양극처럼 기류가 아래로 향하는 곳에서는 고압대가, 위도 60° 근처처럼 공기의 흐름이 상승하는 곳에서는 저압대가 일정하게 나타난다.[기상 패턴]중위도의 바람 세포와 열대의 바람 세포가 부딪치는 위도 30° 부근에서는 하강하는 공기가 고압과 약한 바람 지대를 만들어 내는데, 이 지대를 '아열대무풍대[개념어]'라고 한다. 그리고 적도 근처에서 상승하는 열대 공기는 '열대무풍대[개념어]'라고 불리는 저압대를 만든다. 이곳에서는 공기가 일반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적도의 바다는 대개 잔잔하다.

2문단 : 바람 세포의 회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상 패턴

바람은 더운 열대와 추운 극지방의 온도 차이뿐만 아니라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에서도 일어난다.[바람의 형성] 육지는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으며, 바다는 그것이 서서히 이루어진다.[육지와 바다의 특징]해가 뜨면 육지는 빨리 따듯해져서 공기가 팽창하면서 상승하고, 바다의 차가운 공기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며, 육지에는 저기압대가 형성된다. 해가 지면 육지는 냉각되어 바람의 방향은 거꾸로 바뀐다. 이것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해륙풍[해륙풍에 대한 설명]이다. 대륙 전체의 온도와 바다의 온도가 계절마다 다르면 이 온도 차이에 의해 바다와 육지 사이에 바람의 순환이 생긴다.[바람의 순환이 일어나는 이유] 아시아에서 몬순이라고 불리는 계절풍은 계절마다 일어나는 해륙풍인데, 몬순은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분다. 이 계절풍의 풍향은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선원들은 나침반을 갖지 않고서도 이를 안내인으로 삼아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진 인도 해안까지 항해하면서 무역을 할 수 있었다.

3문단 :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에 의해 생기는 해륙풍
 그런데 지구상에 부는 바람은 온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전에도 영향을 받는다. 19세기 프랑스 수학자 코리올리는 회전면을 가로지르는 것은 회전의 방향에 따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관찰했다. 지구는 동쪽으로 회전하므로 북반구에서는 움직이는 것이 모두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기울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기울는 경향이 생긴다. 이를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코리올리의 힘[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코리올리의 힘’ 때문에 지구상의 바람은 곧장 북이나 남으로 불지 않고 편동풍이나 편서풍이 된다.[코리올리의 힘의 영향]

4문단 : 코리올리의 힘이 바람에 미치는 영향

- 해제 : 이 글은 지구상에 부는 바람이 온도의 차이와 ‘코리올리의 힘’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지구상에 부는 바람은 우선 위도에 따른 온도의 차이 때문에 생기며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생긴다. 또 코리올리의 힘에 의해서 바람이 북쪽이나 남쪽으로 불지 않고 동쪽이나 서쪽으로 기울게 된다.

- 주제 :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지문 확인]

1문단 : 바람 세포의 회전(위도에 따른 온도 차이)으로 발생하는 바람

- 적도 : 열대의 뜨거운 공기가 상승하여 바깥쪽으로 향하고 거기에서 냉각된 후 위도 30° 부근에서 지표로 내려온다.
- 북극, 남극 :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위도 60° 부근에서 다시 상승한다.

2문단 : 바람 세포의 회전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상 패턴

- 아열대무풍대 : 하강하는 공기가 고압과 약한 바람 지대
- 열대무풍대 : 저압대, 공기가 일반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움직임

3문단 :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에 의해 생기는 해륙풍

- 해륙풍의 영향 : 과거 선원들이 나침반을 갖지 않고서도 무역을 할 수 있음

4문단 : 코리올리의 힘이 바람에 미치는 영향

- ‘코리올리의 힘’ 때문에 지구상의 바람은 곧장 북이나 남으로 불지 않고 편동풍이나 편서풍이 된다.

20. <답> ②

1문단에서는 우선 지구상에 부는 바람이 위도에 따른 온도의 차이 때문에 형성되는 바람 세포의 회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열을 열대에서 양극으로 운반하는 바람 세포의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는 바람이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문단에서는 코리올리의 힘에 의해 바람이 북반구에서는 동쪽으로, 남반구에서는 서쪽으로 기운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은 2문단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지구상에 부는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온도 차이와 코리올리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을 바탕으로 ③과 ⑤의 물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대답할 수 있기는 하나, 이 글의 핵심 내용이나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③이나 ⑤의 물음에 대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1. <답> ⑤

2문단의 마지막 문장에 따르면 열대무풍대에서는 공기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다가 잔잔하다. 따라서 열대무풍대에서 바람이 많이 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양극의 바람 세포는, 양극의 차가운 공기가 하강한 뒤, 적도 쪽으로 움직이면서 따뜻해지고 60도 부근에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양극의 바람 세포는 극 쪽에서 적도 쪽을 회전한다.

22. <답> ④

①(중위도의 바람 세포)은 적도의 바람 세포와 양극의 바람 세포 사이(30°와 60° 사이)에 위치하며, 적도의 바람 세포와 양극의 바람 세포에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회전한다. 이렇게 중위도의 바람 세포가 적도와 양극의 바람 세포 사이에 끼여 회전하므로 공기가 30° 부근에서 하강하고 60° 부근에서 상승한다. 그런데 이 중위도의 바람 세포에서 적도에 가까운 30° 부근의 공기는 따뜻하고 양극에 가까운 60° 부근의 공기는 차갑다. 따라서 중위도의 바람 세포에서는,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하는 다른 바람 세포의 공기 흐름(일반적인 열의 흐름)과는 반대로 공기가 움직인다.

23. <답> ④

<보기>의 그림은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륙풍을 나타낸 것이다. 해륙풍에 대해서 설명하는 3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몬순(계절에 따라 부는 해륙풍의 일종)은 풍향을 예측하기 쉽기 때문에 이 바람을 나침반으로 삼아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항해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을 뿐, 그 바람의 방향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륙풍은 바다보다 육지가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에 발생하며, 하루 중에는 낮에 그리고 계절적으로

는 여름에 발생한다.

24. <답> ①

④의 내용에 따르면, 코리올리의 힘 때문에 북반구의 바람은 동쪽으로 기울고, 남반구의 바람은 서쪽으로 기운다. 그런데 위도에 따른 온도의 차이 때문에 지구상에 부는 바람은 적도 쪽에서 양극 쪽으로 불거나 (중위도의 바람 세포에서는), 양극 쪽에서 적도 쪽으로 분다(적도와 양극의 바람 세포에서는). 이를 종합하면, 북반구의 경우 적도에서 30° 사이(적도의 바람세포)에서는 극 쪽에서 적도 쪽으로 바람이 불고, 30°와 60° 사이(중위도의 바람 세포)에서는 적도 쪽에서 극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모두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기운다. 남반구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왼쪽으로 기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①이다.

[25~27] 독서-기술
[지문 분석]

종이에 연필로 어떻게 글씨를 쓸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면 먼저 연필심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연필의 재료]인지 알아야 한다. 연필심의 원료는 점토와 흑연[연필심의 원료]이다. 제조 공장에서는 이들 재료에 물을 넣고 잘 섞어 심의 굵기에 맞추어 기다란 모양으로 만든다.[연필심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길게 뽑아 낸 것을 약 1,000℃에서 구워 굳힌다.[연필심을 만드는 과정]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기름에 담그면 연필심이 완성된다.[연필심을 만드는 과정] 고온으로 원료를 구워 내기 때문에 점토가 흑연을 감싸안은 형태로 굳고, 기름에 담그는 과정을 통해 흑연과 점토 입자 사이에 기름이 침투하기 때문에 글씨가 부드럽게 써진다.

1문단 : 연필심을 만드는 과정

연필로 종이에 글씨를 쓴다는 것은 연필심을 종이에 마찰시켜 들러붙게 하는 것이다. 종이는 언뜻 보면 표면이 매끄럽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표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다.[종이 표면의 특징]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쓰면 연필심 안의 흑연이 점토와 함께 깎여 종이의 섬유 틈 사이로 들어간다. 즉, 연필로 쓴 글자는 종이의 섬유 속에 얽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도 점토나 흑연이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것이다.

2문단 : 연필로 종이에 글씨를 쓸 수 있는 원리

그러면 종이에 연필로 쓴 글자를 지우개로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질문 형식으로 독자의 관심과 흥미 유발]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우개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지우개의 원료는 염화비닐수지, 가소제인 디옥틸프탈레이트, 그리고 세라믹스 분말을 1 : 1.5 : 0.5의 비율로 혼합하여 쓴다. 이들 원료를 잘 혼합한 다음 120~130℃에서 약 1시간 정도 가열하여 고체로 만든다. 이렇게 가열하는 것은 수지분자의 결합을 완화시켜 그 사이에 가소제가 흘러들어가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때 가열 상태가 핵심이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비닐 호스처럼 단단해져 버리기 때문이다. 완성된 지우개는 염화비닐이 가소제를 감싸안은 구조다.

3문단 : 지우개의 구성 요소

가소제는 탄소가 이중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자 구조를 갖고 있다.[가소제의 특징] 이러한 분자 구조는 연필심의 흑연과 비슷하다. 그 때문에 가소제와 흑연은 친화성이 강해 서로 끌어당긴다. 다시 말해서 가소제에 흑연이 접촉하면 마치 자석처럼 물리적으로

달라붙어 종이 틈에 들어 있던 흑연이 제거되는 것이다.[가소제에 흑연이 접촉하면 종이 틈에 있던 흑연이 제거 : 글씨를 지우는 과정] 또한 연필심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원료인 점토는 비닐수지나 가소제에 접촉되어 떨어져 나간다.[점토 : 비닐수지나 가소제로 제거] 지우개의 원료인 염화비닐수지는 이러한 가소제를 함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틀이다. 만약 가소제 없이 염화비닐만으로 종이에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려고 하면 종이 표면에서 미끄러지기만 할 뿐 글씨를 지울 수는 없다. 또 지우개에 혼합되어 있는 세라믹스 분말은 종이를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로 깎아 내어 종이의 섬유 속의 흑연을 가소제와 접촉하게 하기 위한 연마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4문단 : 지우개가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는 과정

이와 같이 종이에 쓴 글자를 지우는 원리를 알아 두면 보통 지우개를 사용할 때 문지르는 동작을 반복하지만 사실은 몇 번 짹 누르기만 해도 연필로 쓴 글자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문단 : 지우개를 문지르지 않고 누르기만 해도 글씨를 지울 수 있는 이유

- 해제 :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를 만드는 과정과 이에 적용된 원리 및 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글이다. 글쓴이는 1문단에서 연필심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연필심은 흑연과 점토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흑연과 점토가 어떤 작용을 하여 종이 위에 글씨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2문단에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다음 문단에서 글씨를 지우는 지우개를 이루는 구성 요소와 글씨를 지우는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 주제 : 연필심을 만드는 과정과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개가 지우는 원리

[지문 확인]

1문단 : 연필심을 만드는 과정

점토와 흑연에 물을 넣고 섞은 다음 심의 굵기에 맞추어 긴 모양으로 만든다. → 구워서 굳힌다. → 기름에 담근다. → 완성

2문단 : 연필로 종이에 글씨를 쓸 수 있는 원리

연필로 종이에 글씨를 쓸 수 있는 원리 : 종이 표면이 상당히 울퉁불퉁하기 때문이다.

3문단 : 지우개의 구성 요소

염화비닐수지, 가소제인 디옥틸프탈레이트, 그리고 세라믹스 분말을 1 : 1.5 : 0.5의 비율로 혼합

4문단 : 지우개가 연필로 쓴 글씨를 지우는 과정

- 가소제와 염화비닐수지의 특성으로 종이의 글씨를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

5문단 : 지우개를 문지르지 않고 누르기만 해도 글씨를 지울 수 있는 이유

25. <답> ⑤

연필로 종이 위에 글씨를 쓴다는 것은 연필심을 종이에 마찰시켜 들러붙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종이는 매끄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표면이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연필심이 종이의 섬유 안에 들러붙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표면이 완전히 매끄러운 셀로판지의 경우 연필심이 들러붙어 있을 굴곡이 없기 때문에 연필심 속의 흑연이나 점토가 표면에 잘 들러붙지 않게 될 것이다. ① 셀로판지의 표면이 완전히 매끄럽기 때문에 표면 속의 연필심의 점토와 흑연이 깎여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② 연필심 속의 흑연과 점토는 섞여 있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떨어져 나가지는 않는다. ③ 셀로판지와 흑연은 서로를 밀어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④ 연필심 속의 흑연과 점토는 연필심 제조 과정에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해 셀로판지의 표면 위에 붙어 있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26. <답> ②

연필심을 구성하는 흑연은 지우개의 가소체에 붙어 떨어지게 되고, 점토는 염화비닐수지와 가소체에 점착되어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염화비닐수지와 세라믹스가 연필심의 흑연과 점토가 분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① 완성된 지우개는 염화비닐수지가 가소체를 감싸안은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화비닐수지가 가소체를 담는 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지우개에서 실질적으로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를 지우는 역할을 하는 것은 가소제인데, 이는 가소제가 연필심의 흑연과 분자 구조가 같기 때문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일용한 것이다. ④ [A]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세라믹스 분말이 종이를 훼손시키지 않을 정도로 깎아 내어 종이 섬유 속의 흑연이 가소체와 쉽게 접촉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⑤ 세 가지 원료를 한데 모아 가열하는 것은 염화비닐수지의 분자 결합을 약화시켜 그 사이에 가소체가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27. <답> ③

연필심의 경우 고온으로 구워 내는 과정을 통해 점토와 흑연이 잘 섞이게 된다. 반면 샤프펜슬 심의 경우 고온으로 구워 내는 과정을 통해 합성수지 속의 불필요한 성분이 없어지고 합성수지 속의 탄소 원자가 사슬 모양의 분자 구조로 바뀌게 된다. ① 샤프펜슬 심의 합성수지는 고온으로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분자 구조가 바뀌어서 '딱'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흑연을 지탱하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② 연필심과 샤프펜슬 심 모두 흑연을 원료로 사용한다. 따라서 <보기>의 '흑연이 많으면 ~열은 심이 된다.'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④ 연필심의 경우 흑연뿐만 아니라 점토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지만, 샤프펜슬 심의 경우 지우개 속의 가소체가 흑연만을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우기가 쉬울 것이다. ⑤ 지우개가 연필이나 샤프로 쓴 글씨를 지우는 것은 흑연이 지우개 속의 가소체에 붙어 떨어져 나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28~30] 독서-예술

[지문 분석]

사진기가 만들어진 직후에는 사진을 예술로 인식하지 않았다. 사진이 예술의 영역에 들어온 것은 근대 이후로, 사진 예술은 1950년대 중반을 전후로 하여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으로 나뉘어진다. 사진 예술을 두 시기로 나눈 요인 중 결정적인 것은 '사진의 시간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으로 나누게 되는 인식의 변화] 근대 사진의 중심을 이룬 것은 다큐멘터리 사진[근대 사진의 중심]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간의 생활 문제[다큐멘터리 사진의 주된 관심사]이다. 따라서 근대 사진까지만 해도 시간이나 공간의 의미나 특성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근대 사진까지의 특징] 시·공간의 일치로서의 '사건'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굳이 구별하자면 근대 사진은 시간보다 공간을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 또는 사건이란 것은 현실적 부피와 질량을 가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서 비로소 감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문단 : 시간성보다 공간성을 중시했던 근대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의 대가인 카르티에-브레송은 자신의 작품을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근대 사진의 특성을 대표하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이 말을, '순간'이라는 낱말 때문에 '시간'을 강조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카르티에-브레송이 말한 '결정적 순간'은 어떤 극적 '사건'을 형성하는 '결정적' 순간이지, 시간만이 독자적으로 강조된 형이상학적 '순간'은 결코 아니다.[결정적 순간의 특징] 사건과 구도의 극적 일치를 가리키는 '결정적 순간'이란 극적 상황의 기막힌 순간 포착 기회로, 시간성이 아니라 조화로운 화면의 공간성에 대해 표현한 것이다.[결정적 순간의 특징]

2문단 : 공간성과 관련된 개념인 '결정적 순간'
한편 현대 사진은 공간보다 시간을 더 중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현대 사진의 특징 : 공간보다 시간을 중시] 공간 형성의 부수적 요소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사진에서는 독자적 발언권을 가지고 있고, 시간은 시간이 형성하는 공간을 따로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때의 공간은 공간 자체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지 않고, 시간을 형상화시켜 주는 부수적 역할을 한다. 시간이 공간을 대동하지 않고 현실화·시각화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이 사진에서 자취를 감출 수는 없다. 다만 공간이 독자적 의미를 상실하였음을 뜻하는 것뿐인데, 공간이 독자적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것은 근대 사진의 주된 관심이었던 '사건'이 사진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뜻한다.[현대 사진의 특징 : 사건이 사라짐]

3문단 : 공간성보다 시간성을 더 중시한 현대 사진
현대 사진에서 시간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 면모로 영상 형성에 작용하고 있다.[현대 사진에서의 시간] 첫째, 시간의 외형적 형태이다. 현대 사진의 개막과 함께 단순한 공간 인식만으로는 얻어질 수 없는 영상이 등장하였는데, 사물의 움직임을 그대로 영상화한 것이다. 현대 사진은 사진에 시간성을 부여하여 그림처럼 감상 대상이었던 사진이 현실로 살아나 스스로 움직이게 했다. 흔들림, 초점 흐림 등은 외형적으로 영상에 움직임을 부여해 시간의 자국을 보여 주었고, 전통적 구도를 무시한 화면 구성, 정상적이지만 않은 화조(tone) 등은 사진에 생동감을 부여해 시간의 흔적을 보여 주었다.

4문단 : 현대 사진에서의 시간성의 면모 (1) - 사진에 시간성을

부여

현대 사진에 작용하는 시간 인식의 두 번째 경우는 ‘결정적 순간’의 개별화에서 찾을 수 있다. 결정적 순간이 작가마다 다르게 설정되고 인식된다는 뜻이다. [결정적 순간의 개별화의 의미] 근대 사진에서 ‘결정적 순간’은 ‘사건’을 형성해 주는 완벽한 시·공간 인식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은 객관적으로 누가 보든 ‘결정적’이어서 여러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근대 사진에서의 결정적 순간] 그러나 현대 사진에서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극적 일치에는 별 관심이 없다. 결정적 순간에 대한 감각이나 인식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극적 일치를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현대 사진은 시·공간의 일치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느껴지는 비현실적 영상이 주류를 이룬다. 비현실적 영상에서는 공간성은 배제되고 시간성만 강조되는 것이다. 현대 사진에는 시간과 공간을 사건화하지 않고 ‘이미지화’한다. 생활과 사건에서 벗어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언어로 설명이 가능한 문학적 의미의 사건이 아니라 시각으로밖에 전달이 되지 않는 시각적 의미의 이미지가 사진의 주제인 것이다.

5문단 : 현대 사진에서의 시간성의 면모 (2) - 대상의 이미지화

- 해제 : 사진 예술은 1950년대 중반을 전후로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으로 나뉘는데, 두 시기를 나눈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시간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때문이다. 근대 사진은 시간성보다 공간성을 중시했지만, 현대 사진은 공간성보다 시간성을 중시했다. 특히 현대 사진의 시간성은 두 가지 면모로 영상 형성에 작용하는데, 첫째는 흔들림, 초점 흐림 등의 기법으로 영상에 움직임 부여해 시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고, 둘째는 시간과 공간을 사건화하지 않고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 주제 : 현대 사진에서 중시하는 시간성

[지문 확인]

1문단 : 시간성보다 공간성을 중시했던 근대 사진

-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을 나누는 인식의 변화 : ‘사진의 시간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 근대 사진의 중심 : 다큐 사진
- 근대 사진은 시간이나 공간의 의미나 특성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음.

2문단 : 공간성과 관련된 개념인 ‘결정적 순간’

- ‘결정적 순간’은 어떤 극적 ‘사건’을 형성하는 ‘결정적’ 순간이지, 시간만이 독자적으로 강조된 형이상학적 ‘순간’은 결코 아니다.

3문단 : 공간성보다 시간성을 더 중시한 현대 사진

- 현대 사진은 공간보다 시간을 더 중시하면서 시작되었음 → ‘사건’이 사진에서 사라짐

4문단 : 현대 사진에서의 시간성의 면모 (1)

사진에 시간성을 부여

5문단 : 현대 사진에서의 시간성의 면모 (2)

대상의 이미지화

28. <답> ③

3문단에서 언급했듯이 현대 사진은 시간성을 중시했는데, 이는 사물의 움직임을 그대로 영상화하려고 했던 것이지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① 3문단의 내용으로 미루어 현대 사진에서 주는 시간이고, 공간은 부수적 역할을 한다. ② 1, 2문단의 내용을 통해 근대 사진은 시간과 공간이 일치된 극적인 사건을 포착함을 알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현대 사진은 감각이나 인식이 개별적이라는 점을 중시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대 사진은 시간성을 인식하지 않았지만, 현대 사진은 시간성을 중시했다.

29. <답> ④

‘D-데이’는 근대 사진의 한 방식인 다큐멘터리 사진의 대표 작품이지만, 현대 사진에서 사용되는 흔들림과 초점 흐림 때문에 현장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적인 것으로, 작가 자신은 이 작품을 보고 실망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대상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려던 작가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이다. 대상의 ‘이미지화’는 현대 사진의 특성으로, <보기>의 사진작가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① 작가는 치열한 전투 장면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려 했다. ② 흔들림과 초점 흐림은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 ③ 후대 사람들은 이 작품에서 현대 사진의 시간성을 느낄 수 있었다. ⑤ 이 작품은 공간성보다는 시간성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30. <답> ③

글쓴이는 4문단에서 현대 사진은 대상의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 흔들림과 초점 흐림, 전통적 구도의 무시, 정상적이지 않은 화조 등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③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1문단에서 근대 사진 이후에 사진이 예술의 영역에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② 4, 5문단에서 현대 사진의 표현 방법은 제시했지만, 주목한 대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④ 5문단에서 현대 사진이 대상을 이미지화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 예를 들고 있지는 않았다. ⑤ 2문단에서 근대 사진작가들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고 3

[31~35] 문학-현대소설
[지문 분석]

해는 어느덧 또 무르녹기 시작하였다.[배경 제시] 빈대 죽인 피가 여기저기 묻은 양회 담벽에는 철창 그림자가 푹푹히 그려져 있다. 사르는 듯한 더위는 등지고 있는 창 밖에서 등을 탁 치고, 안고 있는 담벽에서 반사하여 가슴을 탁 치고, 곁에 뻑뻑이 있는 사람의 열기로 온몸을 썩인다. 게다가 똥오줌 무르녹은 냄새와 살썩은 냄새와 움 약 내에 매일 수없이 흐르는 땀 썩은 냄새를 합하여, 일종의 독가스를 이룬 무거운 기체는 방에 가라앉아서 환기까지 되지 않았다. 우리의 피곤해서 둔하게 된 감각으로도 넉넉히 깨달을 수 있는 역한 냄새였다. 간수가 가까이 와서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감옥 안의 열악한 상황을 제시]

그러고 보니 생각나거니와 나쁜 아니라 온 사람의 몸에는 종기 투성이었다. 가득 차고 일변 증발하는 변기 위에 올라앉아서 뒤를 볼 때마다 역정 나는 독한 습기가 엉덩이에 묻어서 거기서 생긴 종기를 이와 빈대가 온몸에 퍼져서 종기 투성이 아닌 사람이 없었다. 땀은 온몸에서 푹푹 - 이라는 것보다 짹짹 흐른다.[감옥 안의 열악한 상황을 제시]

“에-땀.”
나[서술자]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이상한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었다. 밥 먹은 뒤에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면, 이삼십 분 뒤에는 그 물이 모두 땀으로 되어 땀구멍으로 솟는다.

폭포와 같다 하여도 좋을 땀이 목과 가슴으로 흘러서, 온 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같이 그 불쾌함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땀을 씻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면 초열지옥 에라도 떨어질 것같이, 흐르는 땀을 씻으려는 사람도 없다.[매우 힘든 상황이라서 흐르는 땀을 씻으려는 사람도 없다.]

‘얼핏 진찰감(診察勘)[감옥안의 의무실]에 보내어 다고.’

나의 피곤한 머리는 이렇게 빌었다. 아침에 종기를 핑계 삼아 겨우 빌어서 진찰하러 갈 사람 축에 든 나는 지금 그것밖에는 바랄 것이 없었다. 시원한 공기와 넓은 자리를 (다만 이십 분 동안이라도) 맛보는 것은, 여간한 돈이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입감 이래로 안부는커녕 어느 감방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우의 소식[‘나의 궁금증]을 알지도 모르겠다.

즉, 뜻하지 않게 눈에 떠오른 것은 집안의 일이었다. 회다 못하여 노랗게까지 보이는 햇빛에 반사하는 양회 담벽에 먼저 담배와 냉수가 떠오르고 나의 넓은 자리가 (처음 순간에는 어렴풋하였지만) 푹푹히 나타났다. (어찌하여 그런 조그만 일까지 푹푹히 보였던지 아직껏 이상하게 생각하거니와) 파리 한 마리가 성냥갑에서 담배갑으로 도로 성냥갑으로 왔다갔다 한다.

“쌍!”[비속어 사용]
나는 뜨거운 기운을 내뿜었다.
“파리까지 자유로 날아다닌다[서술자의 처지와 상반된 대상].”

성내려야 성낼 용기도 없어진 머리로 억지로 성을 내고, 눈에서 그 그림자를 지워 버리려 하였다. 그러나 담배와 냉수는 곧 없어졌지만, 성가신 파리는 끝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중략)

달고 맑은 새 공기를 들이마시는 처음 순간에는 기절할 듯이 기뻐했다. 서늘한, 좋은 일기였다. 아까는 참말로 더웠는지, 더웠으면 그 더위는 어디로 갔는지, 진찰감으로 가는 동안 오히려 춥다 하여도 좋을 만치 서늘하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기쁜 것은 거기서 아우를 만난 일이었다.

“어느 방에 있니?”

나는 머리를 간수에게 향한 채로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사감 이방에 ……”

나는 좀 있다가 또 물었다.

“몇 사람씩이나 있니? 덩지?”

“모두들 살이 똥똥 부었어…….”

“도둑놈들. 우리 방엔 사십여 인이 있다. 몸뚱이가 모두 썩는다. 집엔 오히려 넓어서 걱정인 자리가 있건만 ……너 그새 앓지나 앓었니?”

“감옥에선 앓을래야 병이 안 나. 더워서 골치만 쏘디…….”

“어떻게 여기(진찰감) 왔니?”

“배 아프다구 거짓부리 하구 ……”

“난 종기 투성이다. 이것 봐라.”

하면서 나는 바지를 걷고 푸릿푸릿한 종기를 내어놓았다.

“그런데 너의 방엔 움쟁이는 없니?”

“왜 없어 ……”

그는 누구도 움쟁이고 누구도 움쟁이고, 알 이름 모를 이름 하여 한 일여덟 사람 부른다.

“그런데 집에서 면회는 왜 안 오ندی ……”

“글세 말이다. 모두들 죽었는지 ……” (중략)

“다 무슨 변이 생겼나 부다.”

“그래도 어제 공판 갔던 사람이 재판소 앞에서 만형을 봤다는데 ……”

아우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 아우의 ‘봤다는데’라는 말과 함께,

“천십칠 호!”

하고 고향치는 소리가 귀에 울리었다. 그것은 내 번호였다. /

“네!” / “딘찰”

나는 빨리 일어서서 의사의 앞으로 갔다.

“오데가 아파?” / “여기요.”

하고 나는 바지를 벗었다. 의사는 내가 내어놓은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갈핏 들여다보고, ‘요만 것을 …….’ 하는 듯한 얼굴로 말없이 간병수에게 내어 맡긴다. 거기서 껌진껌진한 고약을 받아서 되는 대로 쥐어바르고 이번엔 진찰 끝난 사람 축에 앉았다.[의사의 성의 없는 태도]

이때에 아우는 자기 곁에 앉은 사람과 (나 앉은 데서까지 들리도록) 무슨 이야기를 동등 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간수를 보았다. 간수는 아우를 주목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기지개를 하는 듯 손을 들었다. 아우는 못 보았다. 이번은 크게 기침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못 들은 모양이었다.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였다.[심리상태 직접 제시]

‘알뤄야 할 테인데 …….’

몸을 움츠름츠름하여 보았지만, 그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냥 그치지 않고 하다가, 간수가 두어 걸음 자기에게 가까이 올 때야 처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시치미를 떼었다. 그러나 간수는 용서하지 않았다. 채찍의 날카로운 소리가 한 번 나는 순간, 아우는 어깨에 손을 대고 쓰러졌다.

피와 열이 한꺼번에 솟아올라 나는 눈이 아뜩하여졌다. 좀 있다가 감방으로 돌아올 때에 재빨리 결눈으로 아우를 보니 나를 보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여 있었다.

무엇이 어리고 순결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였나?[아우에 대한 안타까움, 안쓰러움]

나는 바라고 또 바라던 달고 맑은 공기를 맛보기는 맛보았지만,

이를 맛보기 전보다 더 어둡고 무거운 머리를 가지고 감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 김동인, 태형(答刑)

■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의 감옥을 배경으로 극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심을 보여 주고 있다. 더운 여름날 수인으로 꽂찬 감방에서 감방 안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도 줄어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이나마 넓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태형을 받고 감방에서 나갈 줄 알았던 노인이 태형 언도를 공소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감방 안 사람들은 노인을 매도하여 태형장으로 내몰게 된다. 이를 통해 오로지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사고하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해질 수 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주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인간의 이기심 고발

■ 전체 줄거리

비좁은 감방 안에서 ‘나’는 미결수로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 감방에는 ‘나’를 비롯하여 마흔 명이 넘는 죄수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깥 공기를 쉴 수 있다는 이유로 죄수들은 공판을 기다린다. 한 노인이 공판에서 태형 90대의 판결을 받고 공소하자 ‘나’를 비롯한 감방 사람들은 노인이 감방을 떠나면 자리가 조금이나마 넓어진다는 이유로 노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노인은 결국 공소를 포기한 채 태형에 처해진다. 태형을 당하는 노인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기심 때문에 노인을 사지로 내몬 것에 대해 괴로움을 느낀다.

■ 등장인물

나: 미결수. 이기적이고 비정함. 비참한 현실로 인해 자신을 내던져 침몰시키는 인간상

노인: 영원 영감. 태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으나 주위 사람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태형을 결행함

■ 이해와 감상1

이 작품은 훗날 발표하는 「감자」와 함께 환경이 인간의 윤리 의식을 박탈해가는 과정에 대한 관찰의 기록이다.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여 살아가는 죄수들을 설정해 놓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양심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즉, 환경 결정론적 인간의 본성을 그린 작품이다. 다른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는 자신의 조그만 편함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인간들을 설정하여 인간의 도덕성에 관한 질문을 제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고발하는 사실주의 경향의 소설이다. 물론,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나는 고개를 숙임으로써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나타낸다. 이는 작가의 ‘환경 결정론’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 작품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어서 작가가 일제에 대하여 마음 속으로나마 항거한 흔적을 찾게 한다.

■ 이해와 감상2

이 소설은 비좁고 더운 감옥의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감방이 조금이라도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노인을 태형이라는 죽음의 길로 내모는 인간의 추한 이기심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자신의 안락을 위한 인간의 비정함과 도덕성 결여가 생생하게 묘사된 작품으로, 인간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문학관을 확인할 수 있는 소설이다. 1919년 동생의 부탁으로 일제를 비판하는 격문을 써 주었다가 수감 생활을 한 작가의 체험이 담겨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 구성

- 발단: 비좁고 더운 감방 안에서 ‘나’는 괴로워함.
- 전개: 무더위 속에서 거창한 가치보다는 냉수 한 모금과 맑은 공기를 바람.
- 위기: 영원 영감의 공소 사실을 들은 ‘나’는 그를 몰아세워 공소를 포기하게 함.
- 절정: 오랜만에 목욕을 하고 감방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의 비명이 들림
- 결말: 기운 없는 신음 소리가 영원 영감의 소리임을 알고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낌.

31. <답> ⑤

이 소설의 서술자는 주인공 ‘나’로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1인칭 시점의 경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감을 준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32. <답> ⑤

‘나’는 무더운 여름 5평 남짓하는 공간에서 40여 명의 죄수들과 생활하는 매우 비참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렇게 숨통이 콕콕 막히는 감옥에서 ‘나’는 갖은 질병과 고약한 냄새를 견디며 시원한 공기와 넓은 자리를 소망한다. 그런데 이때 인간보다 훨씬 못한 파리마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된다. 즉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파리에 대한 인식은 ‘나’의 비극적인 처지를 부각시키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강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이 자신과 다른 상황의 대조성을 강조하는 표현은 ⑤에 나타난다. ⑤에서도 활자로만 존재하는 자유와 죽어 있는 ‘나’의 영혼을 대조시키고 있다.

33. <답> ④

의사의 어조는 이어지는 내용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의사가 ‘나’가 내어놓은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얼핏 들여다보고 말없이 간병수에게 넘기는 것으로 볼 때, 열과 성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진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나’는 정말 아파서라기보다는 넓고 시원한 자리를 맛보기 위해서 진찰감에 갈 요량으로 종기를 핑계 삼은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의사 앞에서 엄살이나 피병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처지이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신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사의 눈치를 살피게 될 것이다.

34. <답> ⑤

<보기>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의 내면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하는 서술 방법과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의 서술 방법보다는 내용에 주목하여 이질적인 정보를 가려내야 한

고 3

다. ㉠, ㉡, ㉢, ㉣와 달리 ㉤는 인물의 내면 속에 떠오르는 상상 속의 이야기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앞 문장의 서술어를 보면 ‘~집안의 일이었다.’라는 어구가 상상 속의 장면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35. <답> ㉢

진찰을 받으러 나간 ‘나’는 아우와 만나 서로의 형편을 묻는다. ‘나’와 아우의 대화를 통해 볼 때 아우가 갇혀 있는 감방의 상황도 ‘나’가 지내고 있는 감방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배가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고 진찰을 받으러 왔다는 아우의 말로 보아 아우 역시 비인간적인 환경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39] 문학-고전소설

[지문 분석]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때 **홍시랑[홍계월의 아버지]**과 양씨의 딸인 **계월[중심 인물]**은 어릴 적부터 남북을 입은 채 자란다. 어느 날 난을 만나 부모와 이별하고 여공의 도움으로 살아나 **평국[홍계월]**이라는 이름으로 여공의 아들 **보국[홍계월의 아들]**과 동문수학하여 장원급제한다. 북방의 **서달[반동 인물]**이 침략했을 때 천자는 평국을 원수로, 보국을 중군으로 삼아 출정을 명한다.

이때 **원수[홍계월]** 본진으로 돌아와서 장대에 높이 앉아 보국을 잡아들이라 호령이 **추상갈거늘[위엄이 있고 두려울 정도로 서술이 푸르다.]**, 무사 닛을 잃고 **중군[보국]**을 잡아 장대 앞에 꿰리니 원수 꾸짖기를,

“중군은 들으라. 내 만류하되, 자원하여 다짐을 두고 출전하더니 적장의 꾀에 빠져 대국에 수치를 끼치니, 내 구하지 아니하려다가 더러운 도적의 손에 아니 죽이고 법으로 내가 죽여 제장을 효칙하고자 하여 구함이니 죽기를 설워 말라.”

하여 무사를 호령하여 원문 밖에 내어 베라 하니 제장이 일시에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중군의 죄는 군법을 시행함이 마땅하오나 **용력[씩씩한 힘]**을 다하여 적장 삼십여 명을 베고 의기양양하여 적진을 경히 여기다가 패를 보았사오니 한 번 승패는 **병가상사[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흔히 있는 일]**라, **복원 대원수[홍계월]**는 용서하옵소서.”

하며, 일시에 고두사죄하니 원수 이윽히 생각하다가 속으로 **웃고는[보국에 대한 비웃음]**

“그대의 목을 베어 제장을 본받게 하자 하였더니 제장의 낮을 보아 용서하거니와 차후는 그리 말라.”

하니 보국이 백배사례하고 물러나니라.

이튿날 **평명[아침에 해가 돌아 날이 밝아질 무렵]**에 원수 **갑주[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말에 올라 칼을 들고 나서며 외치거늘,

“어제는 우리 중군이 패하였거니와 오늘은 내 친히 싸워 너희를 함몰하리라.”[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

하며 점점 나아가니 적진이 황겁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더니 이때 악대 분을 이기지 못하여 내달아 싸울새, 십여 합에 이르러 원수의 검광이 빛나며 악대의 머리 말 아래에 떨어지거늘, 칼끝에 피어 들고 또 중군장 이하영을 베고 칼춤을 추며 본진으로 돌아와 악대의 머리를 함에 봉하여 황송제를 올리니라. 이때 서달이 악대 죽음을 보고 양천통곡하기를,

“이제 명장이 죽었으니 평국을 뉘 잡으리오.”

하니 철통골이 여쭙오되,

“평국을 잡을 계교 있사오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제 아무리 용맹 있으나 이 계교에 빠질 것이니 살펴보옵소서.”

하고 이날 밤에 장졸을 영하에 군사 삼천씩 거느려 천문동 어귀에 매복하였다가 평국을 유인하여 곧 어귀에 들거든 사면으로 불을 지르라 하고 보내니라.

이튿날 평명에 철통골이 갑주를 갖추고 진 밖에 나서며 크게 외치거늘,

“명장 평국은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니 **원수[홍계월]** 노하여 달려들어 수십여 합에 승부를 이루지 못하더니, 철통골이 거짓 패하여 투구를 벗어 들고 창을 끌고 말머리를 돌려 천문동으로 들어가거늘 원수 따라갈새, 날이 이미 저물었는지라. 원수 적장의 꾀에 빠진 줄을 알고 말을 돌리려 할 즈음에 사면으로 난데없는 불이 일어나 화광이 충천하거늘, 원수 아무리 생각해도 피할 길이 없어 양천탄식하기를,

“나 하나 죽어지면 천하 강산이 오랑캐 놈의 세상이 되리도다. 하물며 잃은 부모를 다시 못 볼 것이니 이를 어찌할 일이오.”

하다가 문득 생각하고 선생이 주신 봉서를 내어 급히 떼어 보니, 봉서 속에 **부작[주인공을 돕는 물건]**을 써 넣었으니 천문동 화재를 만나거든 이 부적을 각방에 날리고 용자를 세 번 부르라 하였거늘, 원수 크게 기뻐하여 하늘에 축수하고 부적을 사방에 날리고 용자를 세 번 부르니, 이윽고 서풍이 대작하더니 북방으로 흑운이 일어나며 뇌성벽력이 진동하여 소나기 비가 내리니 화광이 일시에 스러지거늘, 원수 바라보니 비 그치고 월색이 동천에 걸렸는지라.

[중간 줄거리] 서달을 물리치던 중 계월은 벽과도에서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고 환궁한다. 어의에 의해 우연히 여자임이 밝혀진 계월은 황제의 명에 따라 보국과 혼인하게 된다.

이때 천자 태사관을 불러 **택일[혼인 날을 정하는 것]**할새, 마침 삼월 망일이라. 택일 관자와 예단할 비단 수천 필을 봉하여 위공의 집으로 보내니라. 귀공이 택일 관자를 가지고 계월의 침소에 들어가 전하니 계월이 말하기를,

“보국이 전일 중군으로서 소녀의 부리던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의 아내 될 줄을 알았으리오. 다시는 **군례[군사에 관한 의식]**를 하지 못할까 하오니 이제 망종 군례나 차리고자 하오니 이 뜻을 천자께 상달하소서.”

위공이 즉시 천자께 주달하니 천자 즉시 군사 오천과 장수 수백여 명을 갑주와 **기치[깃발]**, 창검을 갖추어 원수께 보내니 계월이 여복을 벗고 갑주를 갖추고 용봉화월과 수기를 잡아 행군하여 별궁에 좌기하고 군사로 하여금 보국에게 전령하니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측량할 길 없으나 전일 평국의 위풍을 보았는지라 군령을 거역하지 못하여 갑주를 갖추고 군문 대령하니라.

이때 원수 좌우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중군이 어찌 이다지 거만하뇨. **바빠 현신하라.**”[보국에 대한 호령]

호령이 추상갈거늘 군졸의 대답 소리 장안이 끊는지라. 중군이 그 위엄에 황겁하여 갑주를 끌고 몸을 굽혀 들어가니 얼굴에 땀이 흘렀는지라. 바빠 나가 장대 앞에 엎드리니, **원수[홍계월]** 정색하고 꾸짖기를,

“군법이 지중하거늘, 중군이 되었거든 즉시 대령하였다가 명 내림

을 기다릴 것이거늘, 장령을 중히 여기지 않고 태만한 마음을 두어 군령을 게을리하니 중군의 죄는 만만무엄한지라. 즉시 군법을 시행할 것이로되, 십분 짐작하거니와 그대로는 두지 못하리라.”

하고 군사를 호령하여 중군을 빨리 잡아내라 하는 소리 추상같은지라. 무사 일시에 고향하고 달려들어 장대 앞에 꿇리니 중군이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진정하여 아뢰되,

“소장[보국]은 신병이 있어 치료하옵다가 미처 당치 못하였사오니 태만한 죄는 만만무석시오나 병든 몸이 중상을 당하오면 명을 보전하지 못하겠삽고 만일 죽사오면 부모에게 불효를 면하지 못하오니 복원, 원수는 하해 같은 은덕을 내리사 전일 정곡(情曲)을 생각하와 소장을 살려주시면 불효를 면할까 하나이다.”

- 작자미상, <홍계월전>

■ 전체 줄거리

대명(大明) 성화(成化)년간에 형주 구계촌에 홍 무는 소년 급제하여 이부시랑이 되나 백관이 시기하여 시골에서 사는데, 나이 사십에 자식이 없어 고민하던 중, 선녀가 나타나 자식이 되리라는 꿈을 꾸고 나서 딸을 얻으니 계월이다. 광도사가 '오 세에 부모와 이별하고 십팔 세에 다시 만나 공후 작록을 누린다'는 예언을 한다.

계월을 남장하여 공부를 시키니 대단히 총명하다. 계월이 다섯 살 때, 부인(계월의 어머니)이 귀향한 친구 정사도를 만나던 중 북방의 절도사 장사랑이 양주목사와 난을 일으켜 쳐들어오니, 부인이 계월을 데리고 하녀 양윤과 피난한다. 선녀의 도움이 있었으나 부인과 양윤은 도적 맹 길에게 잡히고, 계월은 자리에 싸여 큰 강에 띄워진다.

잡힌 부인과 양윤이 맹 길의 처 춘낭과 모의하여 여승의 배로 탈출하여, 부인은 삭발 중으로 변장하여 절에 숨는다. 계월은 무릉포에 사는 여공이 구해 주는데, 여공이 계월의 이름을 평국이라 고치고 동갑 나이인 아들 보국과 함께 공부시키며 키운다. 이 때 홍시랑(계월의 아버지)도 도적에게 잡혀 부역을 하다가 풀려나, 다시 부역을 했다는 혐의로 벽파도에 귀양을 가서 무인도 생활을 한다.

절에서 지내던 부인의 꿈에 중이 나타나 벽파도에 가 보라 하여, 양윤과 춘낭을 벽파도에 보내 홍 무를 찾아 만난다. 보국과 남장한 평국이 과거에 나란히 급제하여, 보국은 부제후, 평국은 한림학사가 되어 광도사에게 수학하고 무술을 배우나, 부모 생각에 평국의 마음은 편하지 아니하다. 이 때 서관 서달이 쳐들어와 평국과 보국이 원수가 되어 막으러 나가는데, 특히 평국의 전략과 무예가 뛰어나 서달 등이 항복하고 만다.

이 과정에서 평국은 잃었던 부모를 찾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때 평국이 병이 나서 진맥을 받던 중 여자임이 밝혀진다. 천자가 사실을 알아 평국을 보국과 결혼시키는데, 평국은 남편 보국보다 벼슬이 더 높아지는 것을 사양하며, 보국의 첩 영춘이 거만하다고 하여 죽이기도 한다. 오왕과 초왕이 반란하여 쳐들어 오는데, 다시 평국과 보국이 나서서 물리친다. 특히 맹 길의 천자를 급습하여 위태로울 때 평국이 단기로 돌아와 막아낸다. 이에 홍 무는 초왕으로, 여공은 오왕이 되고 보국은 승상이 된다. 나중에 보국의 자식은 초의 태자가 되고 세상은 태평해진다.

■ 핵심 정리

지은이 : 미상

시대 : 조선 시대

갈래 : 고대 소설. 여성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특징 :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이 영웅으로 등장함

배경 : 시간적(명나라 때). 공간적(중국 명나라)

주제 : 여성 영웅의 수난과 극복

■ 이해와 감상

7회의 장회소설(章回小說)로서, 중국 명(明)나라를 배경으로 주인공인 여장군(女將軍)의 고행(苦行)과 무용담(武勇談)을 엮어 나간 영웅 소설이다.

홍시랑(洪侍郎)의 무남독녀(無男獨女)로 태어난 계월(桂月)이 난리통에 부모를 잃고 여공(呂公)의 구조를 받는데, 여공의 아들 보국(輔國)과는 형제처럼 지내게 된다. 남장(男裝)한 계월이 보국과 함께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계월은 대원수, 보국은 부원수가 된다. 계월이 싸움터에서 부모를 찾고 개선하지만, 변장이 탄로되어 보국과 결혼하는데 그는 아내의 직위가 높은 데 불만을 품고 애첩 영춘(永春)을 아낀다. 그러나 계월의 슬기로 남편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부부가 다시 화합한다는 줄거리이다. 다른 고대 소설인 “여장군전(女將軍傳)”과 그 구성이 거의 비슷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여주인공의 부모와의 이별과 만남,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영웅 소설, 군담 소설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남성보다 우월한 여성, 혹은 여성 장군을 등장시키고 있다. 특히 다른 영웅 소설과는 다르게 이 작품은 남편이 아내의 지배를 받고, 군법을 위반하여 엄벌을 받기도 한다. 또한 회군(回軍)한 뒤 여자의 벼슬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부여해 두는 점도 이 작품의 독특한 점이다.

■ 이해와 감상2

「홍계월전」은 위기에 처한 남성을 구하는 여성을 그리고 있다. 계월은 전쟁터에서 위기에 처한 남편을 여러 번 구해주며 또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고 시아버지를 구하며 천자를 구한다. 계월은 국가에 공을 세워서 자신이 영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시가의 가족의 보호자 노릇까지 하는 것이다. 조선조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주변인의 역할만 하도록 강요되던 시기에 계월은 가장의 역할을 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홍계월전」은 기존의 소설과는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 면에서 우월할 수 있으며, 남성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성 인물들은 자신이 마주친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갈등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남성을 공격하고 비판함으로써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사씨남정기」에서 여성(사씨)은 남편과의 관계를 통하여 또 남편의 가문에 헌신하는 행위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인했지만, 「홍계월전」에서 계월은 남성에게 기대어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지는 않았다. 계월은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현실적인 제약을 깨뜨리고 결단력 있게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했던 것이다.

■ 이해와 감상3

「홍계월전」은 조선후기 영웅소설 중에서도 여성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소설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주인공인 소설에서는 여성들이 지켜야 하는 도덕적 규범, 정절, 효행을 강조하는 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나, 여성 영웅소설인 「홍계월전」은 이러한 유교적 이념에서 탈피, 남

성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을 가진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 이름을 크게 떨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6. <답> ③

표제는 작품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작품의 주제는 남성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펼치는 여성 주인공의 활약상이다. ① 이 작품에 이상 사회 건설의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이 작품의 주인공은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정을 받는다. ④ 주인공 '홍계월'이 신분적으로 낮은 계층은 아니다. ⑤ 주인공은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37. <답> ③

[장면㉔]에서 평국은 군령을 어긴 보국을 처벌하려고 한다. 평국의 위세가 보국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장면㉕]에서는 여성임이 밝혀진 평국이 결혼 전에 보국을 군례로써 혼을 내는 장면이다. 즉 장면이 바뀌어도 평국의 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① [장면㉔]의 공간적 위치는 전쟁터이며 [장면㉕]의 공간적 위치는 계월의 집과 궁궐이다. ② [장면㉔]는 전쟁 장면이며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기도 하므로 긴박감이 [장면㉕]보다 더 크다. ④ [장면㉔]는 이틀에 걸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장면㉕]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다. ⑤ 평국과 보국의 갈등은 장면이 바뀌어도 해소되지 않는다.

38. <답> ④

이 글에서 전쟁 중 위기에 빠진 주인공(홍계월)은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써 준 부적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난다. ① 홍계월(평국)은 '원수'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다. ③ 홍계월은 철통골의 간계에 의해 위기에 빠진다. ⑤ 부적을 사방에 날리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요소이다.

39. <답> ⑤

'원수'는 군법을 강조한다. 즉 상대방(중군)이 자신보다 아랫사람이므로 자신의 명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중군'은 자신의 신병과 상대방(원수)과의 과거의 정을 거론하며 감정에 호소한다. ① '원수'가 상황이 위급하다고 말하지는 않으며 '중군'은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다. ④ '중군'이 유교적 도리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옳지만, '원수'가 중군의 지난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현재 자신이 명령을 내렸는데도 빨리 응하지 않은 중군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 것이다.

[40~42] 문학-고전시가
[지문 분석] : 전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엇그제 젊었더니 어찌 이리 다 늙었나[늙음 한탄]
 소년행락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야 서러운 말 하자니 목이 멘다[화자의 현재 상황과 정서]
 부생모욕 신고하야 이 내 몸 길러낼 때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당시의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남편을 만난 후의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음]
 삼오 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 하였더니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배울 사이 북 지나듯[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설빈화안[과거] 어디 두고 면목가증[현재]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필소나
 스스로 참과하니 누구를 원망하리[덧없는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과 늙음에 대한 한탄]
 삼삼오오 야유원에 새 사람이 났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좋은 말과 좋은 채찍]으로 어데어데 머무르고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라
 인연이 끊겼어도 생각이야 없을소냐[임을 계속 기다림]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지나 말으려만
 열두 때 길기도 길구나 서른 날 지루하다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폼다 졌는고
 겨울 밤 차고 찬 때 자최눈 섞어 치고
 여름날 길고긴 때 곳은 비는 무슨 일인고
 삼춘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귀뚜라미]이 상(床)에 올 때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중략>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고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장애물] 막혔어도
 칠월칠석 일 년 한번 때마다 만나는데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기에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난간에 기대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때
 죽림 푸른 곳에 새 소리[감정 이입법, 객관적 상관물] 더욱 싫다
 세상에 설운 사람 수없이 많겠지만
 박명한[운명이 기구한] 여자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화자의 원망이 표출됨]
 - 허난설헌, 「규원가」

▣ 핵심 정리

- * 허난설현(許蘭雪軒 1563-1589) : 명종-선조 때의 여류 시인. 본명은 초희(楚姬). 난설현(蘭雪軒)은 호. 허균의 누이. 여성적인 섬세한 감각의 애정시를 많이 지었다. 허난설현은 황진이(黃眞伊)와 대조되는 시인이며 시집으로 '난설현집(蘭雪軒集)'이 전하며, '규원가' 외에 '봉선화가(鳳仙花歌)'도 그의 작품이라는 설이 있다.
- * 갈래 : 내방 가사(규방 가사)
- * 연대 : 선조 때로 추정
- * 율격 : 3.4조 4음보
- * 문체 : 운문체. 가사체
- * 구성 : 기-승-전-결의 4단 구성
- * 내용 : 조선조의 봉건적 남존여비 사상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인고(忍苦)의 삶을 살았던 부녀자들의 애달픈 심정을 노래하였다.
- * 성격 : '원부사(怨夫詞)', '원부사(怨婦詞)'라고도 한다.
- * 주제 : 봉건 제도하에서의 부녀자의 한(恨)
- * 의의 : 규방 가사의 선구자적인 작품. 현전하는 최초의 여류 가사
- * 규방 가사 : 조선조 양반 부녀자들이 주로 향유하였던 장르로서 봉건 제도하의 속박된 여성 생활의 고민과 정서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분상 양반 문학이지만 내용적으로 평민 가사와 근접한 것이 많다. 규방 가사 중에서 남성의 작품을 여성이 옮겨 베껴서 애독하는 것도 있었으며 개화기를 거쳐 일제하에서도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 이해와 감상

현존하는 최초의 여류 가사인 이 작품은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남존여비(男尊女卑)나 여필종부(女必從夫)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여성의 한스러운 생활과 고독을 표현하고 있다. 섬세하고 절절한 서정이 그리움과 슬픔으로 표현되는 등 여성적 정한(情恨)의 정서가 기본적 구조를 이룬다.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품격을 잃지 않는 시풍이 시적 감각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여성들 사이에 널리 애송되면서 다른 규방 가사에 영향을 끼쳤다. '규원가'를 '기·승·전·결'로 나누어 볼 때, 기구(起句 : 엇그제 저멋더니 ~ 누구를 원원망망하리.)에서는 덧없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는 늙어 보잘것없이 된 자신을 그렸고, 승구(承句 : 三三五五 治야遊유園원의 ~ 죽기도 어려울사.)에서는 입을 원망하면서 춘·하·추·동에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애달픈 심정을 대구법을 사용하여 부각시켰다. 전구(轉句 : 도로혀 풀쳐 헤니 ~ 구비구비 쓴쳐서라.)에서는 거문고를 타면서 고적한 심정을 달래 보려는 심정을, 결구(結句 : 출하리 잠을 드러 ~ 살동말동 하여라.)에서는 끝내 입을 기다리며 운명에 순종하는 당대의 여인상을 그렸다.

작품 전편을 통하여 작중 화자의 슬픔에 싸여 있는 모습이 선하게 나타나 비극미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 노래의 주인공의 정서는 자탄, 자조에서 입에 대한 비난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입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자탄과 자조에서 입에 대한 원망뿐 아니라 입의 신의 없음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며, 마지막에는 '薄박命명흔 紅顏(홍안)이야 날 가트니 쏘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에 대한 정면 비난을 할 뿐 아니라, 입의 있고 없음과 상관 없이 자신의 젊음을 다시 찾으려는 의지와 신의 없는 입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홍만종의 '순오지(旬五志)'에는 허균의 첩(妾)인 무옥(巫玉)이 지었다는 설이 있다.

40. <답> ⑤

이 글은 입을 기다리는 여인이 입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노래한 것이다. 화자의 인식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비관적인 태도를 드러낼 뿐,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드러내지 않고 있다.

- ① '연광이 훌훌'하더니 '설빈화안'이 '면목가증' 되었다는 내용에서 세월에 대한 무상감이 드러나고 있다.
- ② 화자는 입과 함께하지 못해 생겨나는 내적 번민을 꿈에서나 입을 만나는 것으로 해소하고자 하고 있다.
- ③ 결혼하게 되는 과정 등을 떠올려 보며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서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백년기약'을 소망했으나 현재는 입과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소망과 현실의 괴리를 엿볼 수 있다.

41. <답> ④

화자는 [A]를 통해 자신이 어느덧 늙어 버렸음을 드러내는데, 여기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한탄이 묻어난다. 그리고 [B]에서는 입의 방탕한 생활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의 이별이 입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내며 입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한탄과 원망은 그리움으로 집약되고 있다.

- ① 화자는 자신의 늙음과 추함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고 있다.
- ② 화자는 이미 늙어버린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한탄하고 있을 뿐 특별히 후회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입에 대해서도 변덕스러운 속성보다는 방탕하다는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화자는 늙고 추해진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또 입이 화자에게 변명을 하는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화자가 비난하고 있는 것은 입의 편중된 학문 자세가 아니라 입의 방탕함이다.

42. <답> 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사물을 고른다면, '새'를 들 수 있다. 대나무 숲에서 서럽게 우는 '새'에는 서러움에 젖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① '매화'는 여인의 창가에 심어진 꽃으로, 몇 번이나 피었다 졌다는 사실을 통해 세월의 흐름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② '은하수'는 견우와 직녀가 만날 때의 장애물이다. 즉 장애물이 있어 도 견우와 직녀는 이를 극복하며 만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모운'은 날이 저물어 가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애상적인 정서를 심화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 ④ '죽림'은 화자가 머무는 곳 근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고 3

[43~45] 문학-현대시 복합

[지문 분석]

(가)
잃어버렸습니다. -상실의 상황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상실의 대상을 알지 못함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자아 탐색 : 화자가 잃어버린 것이 원래 화자의 내면에 있던 것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의 공간적 연속성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돌담: 장애물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쇠문 : 이중성-장애물, 통로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긴 그림자 : 화자의 절망감, 암울한 시대 상황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길의 시간적 연속성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비에감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부끄러움, 하늘: 성찰의 매개체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이쪽의 황폐함(암울한 시기)
담 저 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 본질적 자아(화자가 잃어버린 것)

내가 사는 것은, 다만, -내: 현실적 자아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극복의지

 -윤동주, <길>

▣ 핵심 정리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 율격 : 내재율
- * 성격 : 독백적
- * 어조 : 성찰적 어조
- * 구성 : 1연 상실감(길 출발)
 2연 돌담을 끼고 가는 길(도정)
 3연 굳게 잠긴 돌담길(닫힌 역사)
 4연 길의 양면성(쇠락 ↔ 번성)
 5연 부끄러운 자아 인식
 6연 역사에 갇힌 자아 확인
 7연 자아와 역사 회복 의지
- * 제재 : 길(자아 성찰의 공간, 시련의 과정)
- * 주제 :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는 내면적 결의
- * 출전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

▣ 이해와 감상

윤동주는 끊임없이 내면적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의 부끄러움의 내면 의식이 그의 시 속에 간단없이 드러난다. 그의 자아는 내면에서 사회로 이행해 가

는 변모의 과정을 보이는데, “자화상”으로 대표되는 내면 침잠에서 “참회록”에 이르면 얼마간 사회 의식이 문면(文面)에 보이게 된다. “길”은 이 둘의 중간 단계에 속하는 작품으로 여전히 내면 세계에 자아의 지향점이 설정되어 있지만, 사회 의식의 일단이 엿보이는 작품이어서 주목된다. ‘길’이라는 삶의 도정(道程)이 설정되고 ‘담’이라는 역사적 상황의 장벽이 자아와 함께 평행선을 이루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자아가 ‘담’ 저편에 놓여 있으며, 그것을 찾는 것이 사는 이유임을 분명히 한다. 그의 자아가 시대적 장벽에 의해 차단되었으며, 그것을 찾아야만 한다는 조용한 결의가 표명된 것으로 보아, 사회 역사적 자아 인식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1연에서 자아는 잃어버린 방향 속에 길을 나선다.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저 당혹감과 허전함에서 길을 나선다. 그의 자아가 분명한 의식을 지니고 있지 못함이 드러난다. 그런데 길은 자아의 바깥에 위치한다. 그가 잃어버린 곳이 내면은 아니며 외부 세계라는 인식은 뚜렷하다. 따라서 외부적 상황에 대한 투철한 현실 인식은 없어도 막연히 외부에 의해 잃었다는 초보적 현실 의식은 엿보인다.

2연은 길과 나란한 돌담이 제시된다. ‘길’은 화자가 걸어가는 도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돌담도 길과 함께 이어져 있다. ‘길’이 화자의 삶의 지표이자 도정이라 할 때, ‘돌담’은 그 삶을 차단하고 전망을 제거하는 억압적 시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 담은 돌로 이루어져 쉽사리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어찌면 영원히 이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걸어야 할 길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 일 것인가를 짐작케 한다.

3연에서는 돌담의 위력적 성격이 분명해진다. 돌의 육중함과 함께 문마저 무겁게 은폐하는 쇠로 된 것이다. 그것은 또 나의 길에 긴 그림자를 드리운다. 결국 나의 길은 돌담의 억압적 위력 앞에 침해당하고, 그럴수록 그 길은 어둡고 쓸쓸하며 고통스러운 길이 될 것이다.

4연은 길의 영속성이 노래된다. 가야 할 길은 얼마간 노력과 인내로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아침에서 저녁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그 한 단절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다음의 시간대인 아침에 또 이어져 있다. 이 길은 영원으로 통하는 길이다. 끝간 테를 모르고 걷는 화자의 참담한 심정이 이 시간 인식에서 드러난다. 역사의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막연히 그 길을 걷는 화자의 참담하고 고독한 모습 속에 그 길을 벗어나지는 않겠다는 잔잔한 결의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다.

윤동주의 이런 태도를 앞에서 성실성으로 설명했는데, 겉으로 힘차게 표명하는 의지는 일견 남성적 풍모를 보여 주지만, 동시에 그것은 낭만적 초월에 불과하는 면이 있음도 지적해 두어야 한다. 윤동주의 시에는 여러면에서도 성실한 의식, 양심을 지키려는 작은 결의가 곳곳에 스며 있다.

5연에는 윤동주의 특징적 의식인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그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푸른 하늘과의 대비 인식에서 말미암는다. ‘푸른 하늘’이라는 천상적(天上的) 이미지는 윤동주 시에서는 지향점으로 표상된다. 양심의 부끄러움이 한 점도 없는 세계, 자아와 세계가 완전히 통합된 세계의 표상이 하늘이다. 그 하늘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자아와 세계가 불일치함에서 연유한다. 이 때의 세계는 돌담으로 가려진 저편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이다. 그 상황을 타파하는 진정한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해 부끄러움을 가진다. 즉 잃어버린 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것’이

진정한 자아임이 여기서 밝혀지기 시작한다. 욕된 자신에 대한 자괴감(自愧感)이 그로 하여금 눈물짓게 하고, 하늘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한 것이다.

6연에서는 길을 걷는 까닭이 분명히 제시된다. 풀 한 포기 없는 삭막한 길, 이 어렵고 고단한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장벽 너머에 자아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의 길 걷기는 자아 찾기의 과정이다. 그러나 그 길은 험난하고, 즐거운 미래를 쉽게 만날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도 가야만 한다는 인식에서 자아의 이중적 성격을 감지할 수 있다. 응당 가야 한다는 결의와 불투명한 전망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가 가야 할 길은 참담함이 함께 한다. 그 상황을 걸어가는 화자의 고독한 모습이 보인다.

7연은 6연의 발전이다. 화자의 삶의 목표가 뚜렷이 제시된다.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이다. 참다운 가치와 타락한 현실과의 갈등을 은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내면적 결의가 표명되어 있다. 여기에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의식이 아닐지언정 내면적으로 그 시대 상황에 맞서 순수한 자아를 지켜 가려는 성실한 태도가 독백으로 토로(吐露)된다.

(나)
 나는 [반듯한 길보다는 (시골 고향 길과도 같은)]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나비에게 소중한 식량을 내어주는] [길가의]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구부러진 길’ 주변의 ‘민들레’, ‘감자를 심는 사람들’을 화자가 긍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부러진 길’, ‘만날 수 있 -’ 등이 반복되며 운율을 형성하고 있기에, 본 작품과 관련하여, ‘특정 시어들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날이 저물면[구부러진 길을 걷다 혹시라도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정겨운]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 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민들레’, ‘감자를 심는 사람’, ‘들꽃’ 등 다양한 존재들이 ‘구부러진 길’을 생의 터전으로 삼아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생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구부러진 길’의 넓은 포용력(세상의 많은 생명을 따스하게 품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삶에 있어서도 좋은 일 싫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등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겪으며(굴곡진 삶을 살며)]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구부러진 길’에서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으로 시의 초점이 전환-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그리하여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기 힘든]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이리치이고 저리 치이며 삶의 굴곡을 가슴 아프게 겪어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그러한 애뜻하면서도 사람 냄새나는 그러한] 삶이 좋다.[‘울퉁불퉁 살아온 사람’,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흙투성이 감자’와 의미상 동격을 이루며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과 대비를 이루고 있음] 구부러진 주름살에[이러한 주름살에는 지난 삶의 진실한 흔적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이러한 삶은 주변과 더불어 이해와 공감의 태도를 보이는 삶일 것입니다] 구부러진 길 같은 [참된 사람의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사람이

좋다.[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주변과 더불어 인생의 고락을(슬픔과 기쁨) 함께 하는 마음 따뜻한 사람임을 알 수 있음.

- 이준관, <구부러진 길>

■ 해제 : 이 작품은 ‘구부러진 길’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변주하면서 자연 그대로의 삶, 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부러진 길’과 그것의 변주라 할 수 있는 ‘구부러진 하천’은 ‘민들레’, ‘감자를 심는 사람’, ‘어머니의 목소리’, ‘물고기’, ‘들꽃’, ‘별’, ‘산’ 등 자연과 인간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장소이다. 아울러 ‘구부러진 길’은 ‘구부러진 삶’,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으로 변주되어 세월의 질곡을 고스란히 안고 가는 삶, ‘가족’과 ‘이웃’을 함께 품고 가는 삶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43. <답> ③

(가)에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나)에는 화자가 좋아하는 길과 좋아하는 사람이 드러나 있다. 이것은 결국 화자가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와 같다. 이렇게 보면 두 작품의 공통점은 ③이다.

44. <답> ①

이 시에서 ‘돌’은 돌담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돌’은 ‘쇠문’과 마찬가지로 찾으려고 하는 대상에 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소재이지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는 아니다.

45. <답> ④

[D]에서 화자가 ‘또한 좋다.’라고 한 것은 [A]의 내용에 덧붙인다는 것이지 [B]의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아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A]~[C]와 [D]~[E]가 대등하게 구성되어 있다